

**Deloitte.**

*Together makes progress*

CES 2026 Debrief

# 모든 움직이는 것에 AI가 살아 있다

**From Digital Intelligence to Physical Reality**

February 2026

Deloitte Insights

# Table of Contents

- I. CES 2026 개요
-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기존 연설로 본 CES 2026
-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 V. 결론 :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CES 2026 개요 - 전시 규모

CES 2026은 역대 최대 규모(약 14만 8천 명, 4,100여 개 기업, 약 7만 평 전시)로 개최되었으며, 휴머노이드·모빌리티·AI 인프라 등 기술 전시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비자 가전 쇼’를 넘어 ‘글로벌 산업·AI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 참가국  
**160개국 +**

매년 20+ 개국 증가

- 전시 카테고리 확대 (전년대비 +40개 증가)
- 정부 차원에서 CES 참여 가치 상승
- 정부·산업 대표단 참여 증가

총 참가자  
**14.8 만명 +**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 임원급 참가자 비중 (55%) 증가 ('25년 53%)
- 경제 산업 미디어 참여자 (e.g. Bloomberg, FT, WSJ 등) 는 약 7,000명 수준 (전년대비 소폭증가)

전시 기업 수  
**4,100 +**

Fortune 500 참여율: 60% 이상

- 전시 참가등록기업수 기준 1위 미국(1476개사), 2위 중국(942개사), 3위 한국(853개사, '25년 2위)
- 포춘 500 기업 중 300개사 참여
- 한국은 혁신상 수상 기업에서 1위 (혁신상 총 347개 중 한국 기업 206개 수상(60%))

혁신상 출품(건)  
**3,600 +**

전년대비 200건 이상 증가

- 전시 면적(7.3만평) 확대 (전년대비 3천평 이상 증가) 로 전시 카테고리 증가
- AI·로봇릭스·모빌리티·헬스케어 관련 비중 압도적
- AI 부문 제출 건수 급증 (전년 대비 29% 증가)

# CES 2026 개요 - 행사 구성

CES 2026은 미디어 데이를 통한 메시지 선점에서 출발해, 기조연설로 산업 방향을 선언하고, 전시·컨퍼런스로 기술을 실체화·해석하며, 스타트업·비즈니스 미팅·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협업과 성과로 연결되는 다층적 산업 이벤트 플랫폼입니다.

구성 요소	내용 상세 및 의미	1.4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Day -2	Day -1	Day 1	Day 2	Day 3	Day 4
		미디어데이		공식 개막일	컨퍼런스 풀 개막	비즈니스 미팅 피크	폐막일
미디어 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S의 전체 메시지·올해 핵심 테마가 ‘공식 오픈 전’ 언론에 선 공개</li> <li>글로벌 미디어 프리뷰 + 테크 트렌드 투 워치 (Tech Trends to W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S의 첫 메시지를 선점하는 글로벌 기술 여론전</li> </ul> </li> </ul>	★★★★	★★★★★	-	-	-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제품 완성도·기술 수준·시장 준비도를 공개</li> <li>바이어·투자자·업계 리더가 기술의 실제 구현 수준을 검증하는 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실체와 시장 준비도를 보여주는 ‘현장 검증’</li> </ul> </li> </ul>	-	Part-open	★★★★★	★★★★★	★★★★	★★★
기조연설 Keyno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션 → 기술·산업·정책에 대한 “올해의 방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S 연도의 전체 방향성을 규정하는 선언적 메시지</li> </ul> </li> </ul>	-	★★	★★★★★	★★★★	★	-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별 심층 세션, 토론·패널·세미나 등으로 구성</li> <li>기술 전략, 규제, 생태계 협력,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 주제로 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정책·기술의 미래 구조를 이해하고, 산업 인사이트를 얻는 구간</li> </ul> </li> </ul>	-	Pre-open	★★	★★★★★	★★	-
스타트업 (Eureka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참가</li> <li>프랑스·한국·대만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스카우팅, 투자 발굴, 인수 협력의 핵심 구간</li> </ul> </li> </ul>	-	-	★	★★★★	★★★★	★
비즈니스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스 뒤편 미팅룸, 호텔 스위트,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이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기업 간 실제 협상·계약·협력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li> </ul> </li> </ul>	-	-	★★	★★★★★	★★★★★	★★★★
네트워킹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VC 리셉션, 각국 정부·지자체 행사, 산업별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VC·국가기관·커뮤니티·미디어가 별도로 운영하는 행사 (공식 채널에 올라오지 않음 → LinkedIn 등 다중 채널로 정보수집 필요)</li> </ul> </li> </ul>	-	-	★★	★★★★	★★★★	★

CES Foundry (올해 신설)

# CES 2026 개요 - 개최지 정보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세계 3대 기술 전시회\*로 꼽히며, 도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분산형 전시회'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LVCC를 중심으로 윈 호텔과 폰텐블로 호텔까지 전시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 개최지

Las Vegas Strip (총 전시 면적: 7.3만평 = 코엑스 7배, 축구장 34개 규모)



## CES 일반 정보

역사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7년 뉴욕에서 시작</li> <li>• 현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li> </ul>
주최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CTA), 매년 첫 주에 4일간 개최</li> </ul>
주요 전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인공지능), 모빌리티, IoT(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지속가능한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등</li> </ul>
참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 LG, 소니, 인텔, 구글 등 주요 글로벌 대기업, 스타트업</li> </ul>
참가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50+개국(13.5만명) → <b>2025년 150+개국(14.1만명)</b> → <b>2026년 (14.8만명)</b></li> </ul>
등록 및 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처(공항 또는 호텔)에서 배지 수령 후 입장</li> </ul>
공항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리 리드 국제공항(Harry Reid International Airport, LAS)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및 인근 호텔로의 접근 용이</li> </ul>
주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벤션 센터내 유료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하루 약 \$10~20</li> </ul>
교통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측 셔틀버스, 우버/리프트, 모노레일 등 교통 수단 이용 가능</li> </ul>

출처: Deloitte Insights (2025), CES Preview

## [참고] 세계 3대 기술 전시회

CES는 MWC, IFA와 함께 세계 3대 기술 전시회로 꼽히며,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틱스, 가전, 헬스케어 등 융복합 미래 기술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혁신의 장으로 진화했습니다.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MWC (Mobile World Congress)	IFA (International Radio Exhibition)
시작 연도	1967년	1987년	1924년
개최 시기	매년 1월	매년 2월 말 ~3월 초	매년 9월 말 ~10월 초
개최 장소	라스베이거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규모: 약 220,000m<sup>2</sup></li> <li>• 방문객 수: 약 115,000명</li> <li>• 참여 업체: 약 3,200개 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규모: 약 120,000m<sup>2</sup> (2023년)</li> <li>• 방문객 수: 약 61,000명 (2023년)</li> <li>• 참여 업체: 약 2,400개 사 (202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규모: 약 151,000m<sup>2</sup> (2022년)</li> <li>• 방문객 수: 약 161,000명 (2022년)</li> <li>• 참여 업체: 약 1,100개 사 (2022년)</li> </ul>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여 년 역사의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li> <li>• 연초 행사로 당해년도 트렌드 및 업체별 연간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 가능</li> <li>• 가전제품 이외에 자동차,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IT 최대 규모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행사</li> <li>• GSM World Congress → 3GSM → World Congress → MWC(2008년)로 명칭 변경</li> <li>• 모바일 신제품 공개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li> <li>• 해당 연도 신제품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 확인 가능</li> <li>• 3대 전시회 중 가장 오랜 역사, 1971년 GRE에서 IFA로 명칭 변경</li> <li>• 2006년 격년제에서 매년제로 변경</li> </ul>

# Table of Contents

I. CES 2026 개요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III. CES 2026 기조 연설의 핵심 메시지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V. 결론 :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포스터 및 슬로건

CES 2026의 슬로건 'Innovators Show Up'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보유한 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무대에 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CES가 전시회를 넘어 혁신이 현실화되는 '글로벌 무대'임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CES 2026**  
Powered by The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 innovators show up

- CES 2026 공식 포스터 : Innovators Show Up (혁신가들이 나타났다)
- 혁신의 주체를 기업 기술이 아닌 혁신가(사람)로 재정의

## CES 2026의 본질적 변화

### 혁신 기술의 비전과 개념 → 실행과 실증으로 전환

“혁신은 말이 아닌 실제 등장으로 증명된다”

#### 생성형 AI hype → Actual AI Adoption으로의 전환 국면

- 2024-25년이 '생성형 AI 붐'이라면, 2026년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AI(Operative AI)가 주인공
- CTA는 AI를 CES 2026의 핵심 테마기술로 명시하고, 모든 제품·서비스에 적용된다고 선언

#### 글로벌 기업들의 '실전 적용 사례(Use-Case)' 공개 경쟁의 장

- Caterpillar는 AI·ML·자율기능을 탑재한 중장비 적용 사례를 키노트에서 공개
- “누가 더 빨리 실전 적용했는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예정  
(AI 모델 경쟁에서 칩 → 디바이스 → 실제 사용 사례로 확장 중)

#### CES 파운드리 신설 : CES는 혁신의 Showcase → 제작소(Foundry)로 전환

- AI·블록체인·양자·사이버보안 등의 미래 기술을 하나의 공간에 묶은 특별관이 올해 최초로 신설
- AI, 블록체인, 양자기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출범
- 오픈AI, 구글, NVIDIA, 엔트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가 기대

#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핵심 주제(Featured Topics) 변화 추이

CES 2026의 핵심 주제는 AI를 중심으로 로보틱스·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전반으로 확장되며, 기술을 단순히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과 일상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Operative AI' 시대로의 진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	CES 2024	CES2025	CES2026
슬로건	All Together, All On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	Innovators Show UP
주요 메시지	모든 기업과 산업이 혁신기술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	사람과 기술 간 연결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며, 뛰어들자	혁신가들이 등장했다
주목할 만한 기술 주제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핵심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li> <li>모빌리티</li> <li>푸드·애그 테크</li> <li>헬스·웰니스 테크</li> <li>지속가능성</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 안보</li> <li>5G·IoT</li> <li>스마트 시티</li> <li>로봇</li> <li>메타버스</li> <li>Display</li> <li>스마트 홈</li> <li>우주기술</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핵심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A)</li> <li>모빌리티</li> <li>디지털 헬스</li> <li>로봇</li> <li>지속가능성</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 안보</li> <li>5G·IoT</li> <li>스마트 시티</li> <li>AR/VR/XR</li> <li>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li> <li>스마트 홈</li> <li>푸드테크</li> <li>우주기술</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2025년 추가 강조된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자컴퓨팅</li> <li>에너지 전환</li> <li>블록체인·웹3</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핵심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A)</li> <li>로보틱스</li> <li>모빌리티</li> <li>디지털 헬스케어</li> <li>지속가능성·에너지</li> <li>인간 안보</li> <li>산업 솔루션 (Enterprise)</li> <li>5G·6G (Next G)</li> <li>스마트 커뮤니티</li> <li>XR·공간 컴퓨팅</li> <li>엔터테인먼트·미디어·콘텐츠</li> <li>스마트 홈</li> <li>푸드테크</li> <li>우주기술</li> <li>핀테크</li> <li>양자컴퓨팅</li> <li>블록체인</li> </ul> </div>
AI 특이점	생성형 AI의 대중화 및 잠재력 폭발 (AI Hyper Peak)	AI의 산업별 적용과 융합이 본격화 (Convergence & Application)	실전 AI 시대로의 전환기 (Operative AI) "Innovators Show Up - 이제는 '작동하는 혁신'만 인정되는 해"

CES 2026  
파운드리 주제

#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CES 2025 vs. CES 2026

CES 2026은 CES 파운드리 신설을 기점으로 전시 중심의 행사에서 글로벌 산업의 플랫폼 역할로 본격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CES 2025	CES 2026
신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obility Stage (West Hall 신규 무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행·에그리테크·건설·선박·항공 등 확장된 모빌리티 전시 허브</li> </ul> </li> <li>• <b>Quantum World Congres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 컴퓨팅의 실제 산업·비즈니스 적용 논의</li> </ul> </li> <li>• <b>Great Minds Sess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Sustainability Track” 안에서 독립 세션 형태로 신설, 에너지 전환 논의를 총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ES Foundry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성격: AI·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을 심층 탐구하는 CES의 핵심 디테크 거점</li> <li>- 기간·장소: 1월 7~8일, 폰텐블로 (Fontainebleau Las Vegas)</li> <li>- 주요 구성: 몰입형 무대, 체험형 시연, 큐레이션 된 네트워킹 프로그램</li> <li>- 주요 발표: AMD, AWS, 히타치 (Hitachi) 등 글로벌 기업 리더 연사 참여</li> <li>- 기술 시연: 디웨이브 퀀텀 (D-Wave Quantum), IBM, 몽크스 (Monks), 슈퍼Q (SuperQ) 등 혁신 기업의 소프트웨어 데모</li> <li>- 네트워킹: IBM·JobsOhio·Vector·워싱턴 D.C. 공동 주최의 파운드리 축하 행사로 네트워킹 제공</li> </ul> </li> </ul>
전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VCC와 Sands Expo / Venetian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테크 분야 전용 공간 확보 (폰텐블로 호텔)</b></li> <li>• <b>삼성전자, LVCC에 인접한 원호텔에 단독관 확보</b> [4,628㎡(약 1400평) 규모의 단독관 조성]</li> </ul>
Track	AI (전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레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가 B2B와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 (Operative A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체제 (OS), 에이전트, 전력·데이터센터 등 시스템 레벨</li> </ul> </li> </ul>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DV = SDV+AI OS → Physical AI 로 재정의</b></li> <li>• <b>도시 인프라·전력과 연결된 모빌리티 시스템 논의</b></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너지·전력 인프라 분야 확대</b> (지속가능성, 에너지 유틸리티 중심)</li> </ul>
한국 기업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참가기업 비중, 21%로 3위(1위美, 2위中)</li> <li>• 혁신상 수상 비중 (46%, 1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기업 수 1위 미국(1,476개사), 2위 중국(942개사), 3위 한국(853개사)</li> <li>• 혁신상 수상 비중 60%로 1위</li> </ul>

## CES 2026 특이사항

**CES는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 한국의 기술 리더십 격상**

CES Foundry 신설로 디테크·AI 인프라를 기존 전시에서 분리  
→ 전시중심에서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

CES의 무게중심이 Consumer 가전에서 Deep Tech & Industrial B2B로 이동

한국 기업이 CES ‘참가자’에서 ‘메인 무대의 중심 플레이어’로 이동

에너지는 ‘지속가능성 이슈’에서 ‘AI 인프라의 전제조건’으로 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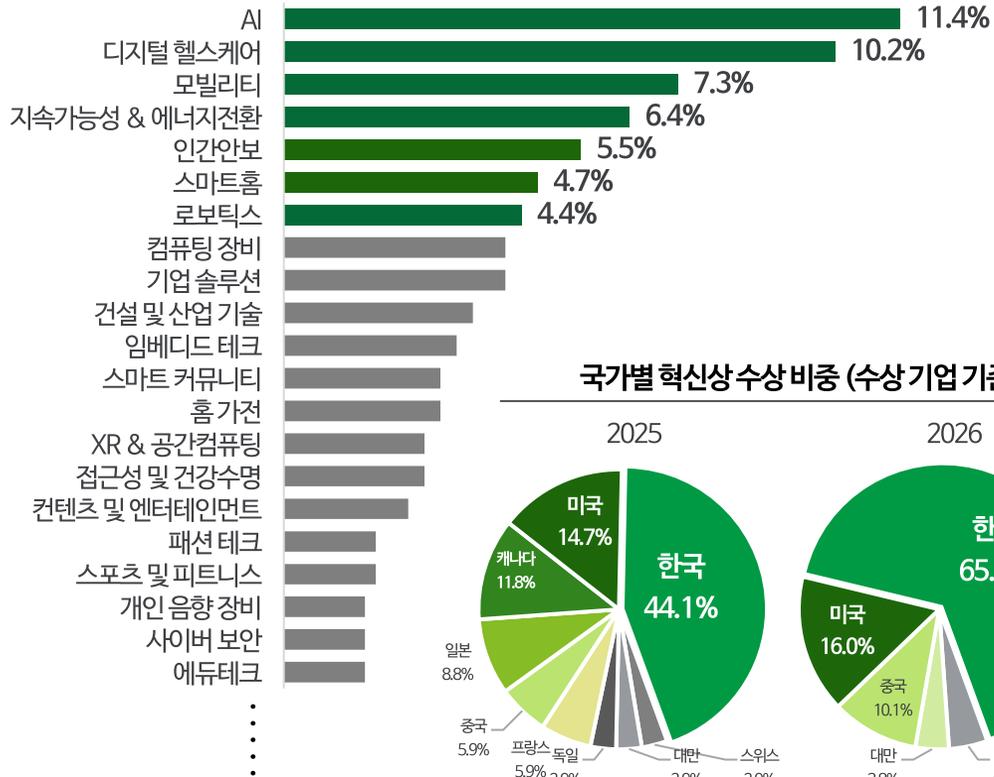
#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혁신상

CES 2026은 AI·헬스케어·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B2B 산업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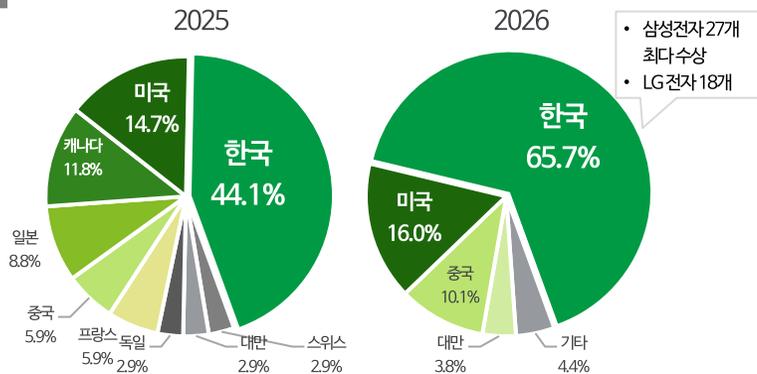
## CES 2026 혁신상

### 각 부문별 혁신상 수상 비중

제품기준



### 국가별 혁신상 수상 비중 (수상 기업 기준)



## CES 2026 혁신상에서 나타난 변화 방향

### CES가 다루는 산업 영역 및 영향 범위 확대 + 한국의 강세

#### AI·헬스케어 독주 (상위 21.6%)

- CES의 정체성이 소비자 가전(2.9%)에서 산업·인프라 플랫폼으로 재편 중
- 기업 전사가 제품 단위에서 AI 전용 칩과 운영체제(OS)로 확대 (e.g. 삼성-양자보안칩, 탈부착 가능한 차량용 SSD 등)

#### 에너지·인프라 부상 (상위 4위 6.4%)

- 전력 인프라가 기술 경쟁의 중심으로 이동 (e.g. 한전이 총 5개 부문에서 혁신상 획득,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핵심 영역 기술)
- AI 혁신이 전력 인프라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 진입

#### B2B 산업으로 영향 확대

- 로보틱스(4.4%)+기업솔루션(4.1%)+건설기술(3.5%) 부문의 전체 혁신상 비중(12%)으로 볼 때 B2B 비중 확대 (e.g. 두산 로보틱스 Scan&Go 는 최고 혁신상 수상)

#### 한국의 기술 리더십 강세

- 한국은 혁신상 최다 수상국(65.7%)으로 절대적 기술 우위 입증
- 한국은 배터리·ESS·전력 AI 솔루션이 최고혁신상(Bol) 수상 (삼성 SDI- 차세대 배터리, 한전-AI 변전설비 전력망 관리 솔루션)

출처: CES Innovation Awards - <https://www.ces.tech/ces-innovation-awards/?year=2026&page=3>; Samsungnewsroom(25.11.6), 삼성전자, CES 2026 혁신상 대거 수상; 언론 각 보도 종합

#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CES 2026 현장을 본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코멘터리

영상 보러가기

김태환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동차 산업 리더

“재작년이 ‘모터쇼’, 작년이 ‘SDV’였다면, 올해는 로봇틱스와 Physical AI가 중심으로 올라오며 ‘경험과 적용’으로 고도화된 전환이 보였습니다.”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Physical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연결되는지 ‘프레임워크’로 설명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박형곤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E(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섹터 리더

“CES는 이제 ‘탈(脫) CES’, 전시공간을 벗어나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거대한 테크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ES의 중심은 SDV가 아니라 ‘움직이는 Physical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의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부문 Customer 본부장, Deloitte Digital 리더

“작년이 ‘AI를 탑재했다’였다면, 올해는 AI를 ‘실제로 보여줘야만 했던 해’였습니다.”

“삼성과 NVIDIA처럼 일부 기업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를 벗어나 독립된 공간에서 자사 브랜드를 ‘이벤트화’하며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재민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부문 대표

“CES를 마케팅 무대로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체감상 10%도 안 됩니다. 기억에 남는 어젠다를 가진 기업은 더 적습니다.”

삼성/NVIDIA의 공간 분리는 ‘우리만의 어젠다로 쇼업’하려는 시도이고, 그 방향은 의미가 큼니다.”

이중희 파트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Physical AI 리더

“CES 기술들은 이제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일상에 가까이 들어온 ‘상용화의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B2B·B2C 경계가 흐려지고 있고, 이제는 수요 창출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ES 2026 참관파트너들 간패널 토의 모습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내 딜로이트 하우스 (2026.1.8)

# Table of Contents

I. CES 2026 개요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기존 연설로 본 CES 2026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V. 결론 :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기조 연설로 본 CES2026

기조연설자들은 모두 NVIDIA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각 산업 분야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AI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NVIDIA - Jensen Huang

### 로보틱스의 미래 제시



“올해는 인간 수준의 로봇이 등장 할 것입니다.”  
 “로봇은 이동, 대근육, 잡기, 미세조작 순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 AMD - Dr. Lisa Su

### ‘요타플롭스’ (Yottaflops\*)시대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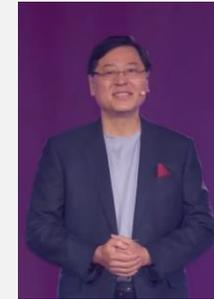


“AI는 지난 수십 년간 등장한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그 기반은 컴퓨팅입니다.”  
 “향후 5년간 컴퓨팅 성능을 100배 확장하는 ‘요타플롭스’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타플롭스: 초당 10<sup>24</sup> 회의 연산 수행 능력

## Lenovo - Yang Yuanqin

### 하이브리드 AI 비전 선언



“AI는 더 이상 생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의 시대입니다.”  
 “하이브리드 AI 위에서, 슈퍼 에이전트와 새로운 폼팩터가 결합될 때 에이전틱 AI의 미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SIEMENS - Roland Busch

### AI 시대를 위한 산업 기술



“7년내 산업AI의 판도는 뒤집어 질 것입니다.”  
 “AI산업화, 지금 못하면 뒤쳐질 것입니다.”

## CATERPILLAR - Joe Creed

### Caterpillar의 중장비 혁신



“건설·광산·중장비 현장은 AI기술의 가치가 증폭되는 곳입니다.”  
 “AI 역할은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작업자 보조에 있습니다.”

## HAVAS\* - Yannick Bolloré

### 인간-AI 창의성을 위한 비전



“AI 전환능력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사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바스는 1835년 설립된 세계 6위의 광고 그룹으로 크리에이티브와 미디어, 헬스 부문 등에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대기업

## Mckinsey & Company - Bob Sternfels & Hemant Taneja

### AI의 실험은 종료, 전환의 시점



“AI는 더 이상 실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AI가 곧 감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I시대에 인간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 1. 기조 연설 (Jensen Huang) : 젠슨황의 깜짝 발표 , 엔비디아 칩 단 자율주행차 예고

NVIDIA는 'AI 인프라 기업'에서 '현실 세계 AI 운영체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AI 경쟁의 초점이 모델 정확도에서 추론 능력과 실제 행동으로 이동하고 자율주행·로봇 등 Physical AI가 차세대 경쟁력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주제: AI의 미래와 인프라·AI 플랫폼 전략
- 연사: Jensen Huang (NVIDIA CEO)
- 일시: 1월 5일 월요일 오후 1시 00분
- 장소: Fontainebleau Las Vegas 호텔

## Physical AI 전략 제시

- AI 칩 기업을 넘어 '피지컬 AI(Physical AI)' 플랫폼 리더로 도약 선언
- 피지컬 AI는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며, 실제 공간에서 추론·판단·행동하는 AI  
→ 로봇·자율주행차가 대표 사례
- 엔비디아는 AI 칩 + AI 모델 + 플랫폼을 통합 제공하는 풀스택 전략 추진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자율주행: '인지 → 추론' 단계로 진화

- 자율주행차용 AI 모델 '알파마요(Alphamayo)' 플랫폼 공개
  - 단순 센서 인식이 아닌 Reasoning(추론)·설명 가능한 AI
  - 미국 출시: 엔비디아 칩 탑재 차량, 2026년 1분기 도로 주행 시작
  - 유럽 출시: 2026년 2분기 예정
  - 아시아 출시 및 운영 계획: 2026년 하반기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CLA 차량과 함께 운영

###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AI 로봇

- 엔비디아 코스모스(Cosmos):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환경 이해 모델
- 옴니버스(Omniverse): 인공 데이터로 로봇·피지컬 AI 학습  
→ "로보틱스에서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

###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Vera Rubin)'

- 블랙웰(Blackwell) 후속 차세대 AI 칩, 현재 완전 양산(Full Production) 단계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
- 이전 대비 추론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1/10)되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전압 최적화' 기술이 포함
- 챗봇·AI 앱 기준 최대 5배 연산 성능 제공

### AI 생태계의 무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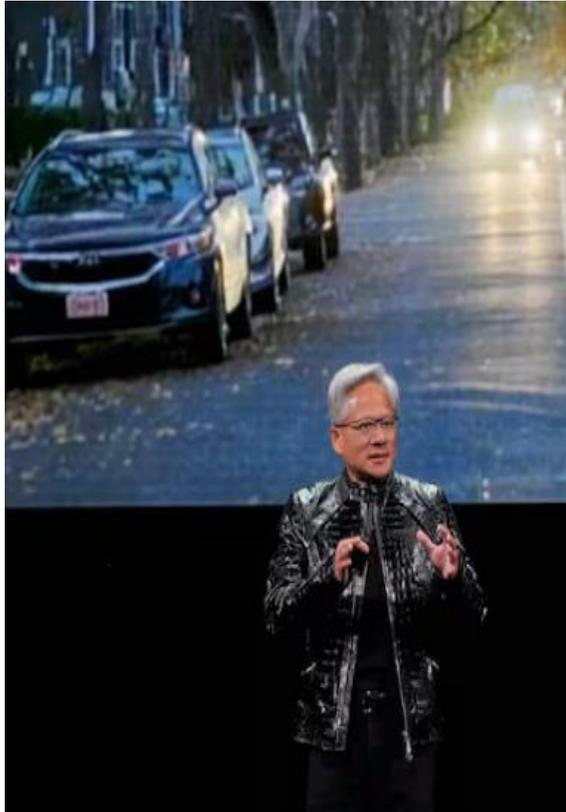
- Siemens와 산업 AI 운영체제 파트너십 Strategic Alliance
- 루빈에는 HBM4(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공급을 위한 최종 테스트 단계
- AI 인프라 경쟁이 GPU → HBM → 전력·시스템으로 확장 중임을 재확인

# 1. 기초 연설 (Jensen Huang) : NVIDIA는 '피지컬 AI(Physical AI)' 플랫폼 리더로 도약 선언

피지컬 AI는 센서와 물리 법칙 이해를 기반으로 현실 공간에서 판단·행동하는 기술로, 엔비디아는 AI 칩을 넘어 로봇·자율주행용 모델과 플랫폼까지 확장하며 이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젠슨황은 로봇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며 연설을 시작



자율주행자동차용 AI모델 소개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로봇 업체와 피지컬 AI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조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Vera Rubin)' 소개

## 2. 기조 연설 (Dr. Lisa Su) : 칩 전쟁은 끝났다

리사 수의 기조연설은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에서 '전방위적인 컴퓨팅 인프라'와 실행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주제 : AI로 인해 달라지는 세상
- 연사 : 리사 수 박사(Dr. Lisa Su) AMD CEO
- 일시 : 1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베네시안(Venetian), Palazzo Ballroom

### 핵심 주제 및 내용

#### • 전방위적 AI의 확산 전망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엣지, PC·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컴퓨팅 레이어에서 AI가 기본 전제가 되는 시대가 도래

#### • AMD의 AI 풀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 CPU, GPU, 적응형 컴퓨팅(e.g. FPGA·SoC), AI 소프트웨어 스택을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로 제시
- AMD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서버부터 클라이언트, 임베디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제품군으로 AI 워크로드 전 주기 지원
- (데이터센터 - AMD EPYC™ 프로세서) → (AI 가속 - AMD Instinct™ GPU)
- (디바이스 / PC 게이밍 - Ryzen™ CPU, Radeon™ GPU)

### 주요 시사점



AI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장 큰 워크로드에서 일상의 작은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에 일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빙산의 맨 위 조각일 뿐입니다.

### 엔비디아의 독주에 도전

-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생태계에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
- GPU 단일 축이 아니라 CPU·GPU·적응형 컴퓨팅·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플랫폼 전략 → 단일 칩이 아닌 슈퍼 컴퓨터 랙 스케일 전략 (Rack-Scale) → AI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 AI 인프라 투자 옵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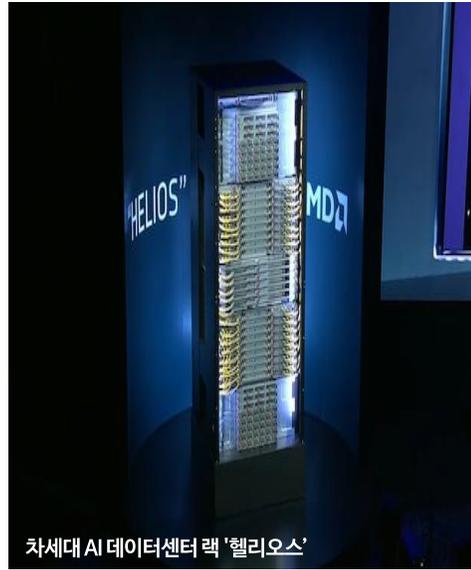
- 국내 서버·PC 제조사,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은 AMD 칩 활용 시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AI 인프라 옵션 제시
- AI PC·AI 서버·엣지 장비 등에서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 확보 기회 제공
- 생성형 AI와 개인화 AI를 단말에서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엣지 AI 가속 등을 확산 시키는 인프라 제공

## 2. 기조 연설 (Dr. Lisa Su) : 향후 5년간 컴퓨팅 성능을 100배 확장하는 ‘요타플롭스’ 시대 도래

리사 수는 신규 서버 랙 제품을 공개하며, 급증하는 글로벌 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AI는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이며, 미래 경쟁력은 얼마나 거대한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MD의 AI 칩을 들고 성능 소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랙 '헬리오스'



그렉 브룩만 오픈 AI 공동창립자 소개



페이페이 리 (World Labs) : 3D 공간 시연



휴머노이드 로봇 "Gene One" 소개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이 달 착륙선과 로버에 AMD의 칩 사용 계획 발표

-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랙 '헬리오스' (Helios)와 MI455 가속기 공개
  - NVIDIA CUDA의 폐쇄 생태계를 반대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타겟팅 한 전략
  - CPU와 GPU, 네트워크 칩을 하나의 트레이에 통합해 병목 현상을 없앤 설계
  - Helios 랙 시스템, Instinct MI 455, Ryzen AI 400 시리즈, 의료·과학·교육 현장 적용 사례가 대거 소개
  - "Helios"는 무게만 약 3.1톤(7,000파운드)의 수냉식 랙 시스템 (2나노 및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MI455 GPU가 탑재)
  - MI455는 트랜지스터 3,200억 개를 집적하고 HBM4 메모리를 탑재해 이전 세대 대비 추론 성능 10배 개선

- AI 컴퓨팅의 미래 제시: 클라우드부터 PC, 헬스케어, 로봇, 우주, 슈퍼컴퓨터까지 전 영역에서 AI 컴퓨팅 확장을 선언
  - AI의 기반은 컴퓨팅"이라며, AI를 전 영역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타스케일(Yotta-scale) 컴퓨팅이 필수라고 강조
  - 그렉 브룩만은 AI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진화하면서 컴퓨팅 병목이 심화되고 있다 (리사 수 CEO의 컴퓨팅 수요 증가 주장에 동의)
  - 리사 수는 AMD는 GPU·CPU·NPU·적응형 컴퓨팅(Adaptive Computing)을 유일한 기업임을 언급
  - 클라우드부터 PC, 엣지(Edge)까지 아우르는 풀스택(End-to-end) 솔루션 제공 계획 제시

### 3. 기조 연설 (Yuanqing Yang) - 전 제품군 AI 내재화 선언

양 위안칭은 CES 2026에서 AI를 '생성 기술'이 아닌, 기기·폼팩터·클라우드를 관통하는 에이전틱 지능으로 재정의하며, 하이브리드 AI 시대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Lenovo



- 주제 : 하이브리드 AI 혁신
- 연사 : 양 위안칭 (Yuanqing Yang) 레노버 CEO
- 일시 : 1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 장소 : 스피어(Sphere)

#### 핵심 주제 및 내용

#### • Lenovo Tech World @ CES 공식 기조연설로 Lenovo의 AI 비전과 아키텍처 제시

- Smarter AI for All 비전과 단일 클라우드 중심 AI에서 Hybrid AI로의 전환 전략 제안
- 온디바이스 AI와 퍼블릭클라우드 AI의 동시·선택적 활용 → 퍼스널 AI 슈퍼 에이전트 구현 (능동형 AI 비서)
- AI PC는 제품이 아닌 'AI의 엣지 노드'로 재정의

개인의 가치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기업의 가치	(클라우드 비용 구조 혁신)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아, 데이터 전송 및 연산 비용 감소

#### 주요 시사점

#### 하이브리드 AI에서 에이전틱 AI로의 전환

- AI가 단순 생성 도구를 넘어 스스로 사고·판단·행동하는 Agentic AI 단계로 진입 선언
- 개인 AI를 '앱'이나 '기능'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지능적 주체로 재정의

#### 기기간 단절 없는 사용자 경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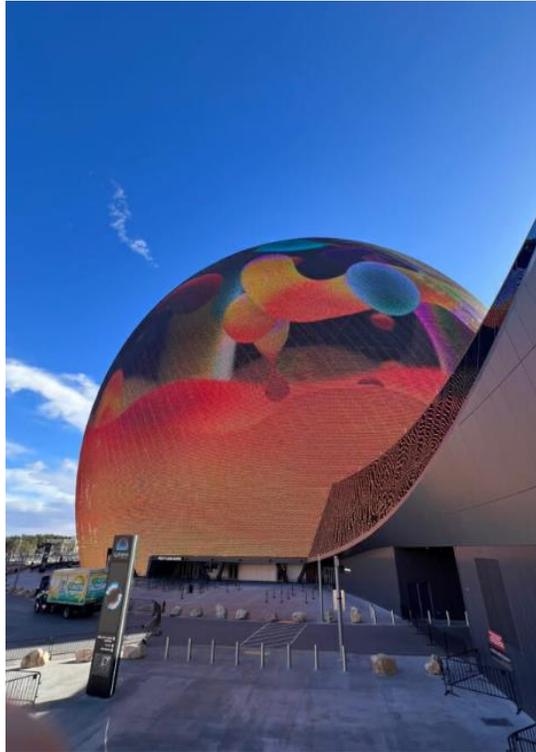
- PC·스마트폰·웨어러블을 관통하는 통합 개인 AI Qira 공개
- 사용자 맥락을 인지하고 작업하는 Ambient Intelligence 구현
- 명시적 활성화·사용자 데이터 통제 기반의 신뢰성 있는 개인 AI 강조

#### AI 네이티브 폼팩터와 Pocket-to-Cloud 인프라 전략

- 롤러블 디스플레이, AI 글래스즈, 웨어러블 AI 동반자 등 AI 네이티브 폼팩터 제시
- 고성능 AI를 사용자 근접 엣지에서 구현하는 개인용 AI 허브 개념 제시
- NVIDIA와 협력한 AI 클라우드 기가 팩토리를 포함해 풀스택 AI 포트폴리오 구축

### 3. 기조 연설 (Yuanqing Yang) - 'One AI, Many Devices(하나의 AI, 다양한 기기)' 생태계 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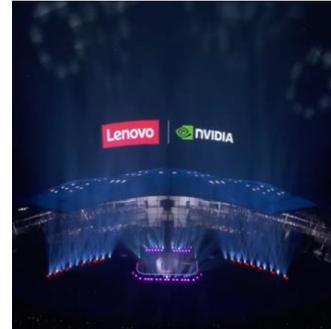
양 위안칭은 롤러블(Rollable) 디스플레이 등 혁신적 폼팩터부터, NVIDIA와 협력한 'AI 클라우드 기기팩토리' 등 인프라까지 'Pocket-to-Cloud(기기부터 클라우드까지)' 전 영역을 커버하는 AI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레노버 양위안칭 CEO의 기조 연설이 열리는 스피어



하이브리드 AI (Personal AI + Public AI + Enterprise AI) 비전 선언



NVIDIA와의 협업 강조



- (상단)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등장해 축구 경기에 적용될 AI 솔루션 소개
- (하단)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의 거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과시

## 4. 기조 연설 (Roland Busch) - AI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산업용 AI 혁명'을 선언

롤랜드 부시는 산업용 AI가 7년 내 물리적 시스템에 내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SIEMENS



- 주제 : 산업용 AI의 현실 세계 적용
- 연사 : 롤랜드 부쉬(Roland Busch) 지멘스 CEO
- 일시 : 1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 장소 : 베네치안(Venetian), Palazzo Ballroom

### 핵심 주제 및 내용

#### • 현실 세계(real world)의 제조·운영 분야에서 AI가 성능·효율성을 높이는 전략과 사례 제시

- 제조, 인프라, 운송을 혁신할 AI 기반 기술 스택과 디지털 트윈
- 산업현장에서 AI·디지털 트윈·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혁신하는지 설명
- AI·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공장 혁신 사례 제시 (Pepsi Co)
- 산업용 AI는 단독 기업이 아닌 '동맹 구조'가 필요 (Siemens+Microsoft+NVIDIA)
- NVIDIA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핵융합로에 적용할 계획
- 수년치 실험을 몇 주간의 가상 최적화로 압축 가능

기업 가치	생산라인 최적화, 다운타임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맞춤형 생산
-------	--------------------------------------

### 주요 시사점

#### AI는 산업의 운영체제(OS)

- AI와 디지털 트윈 결합으로 설계 - 운영 전 과정이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통합
- 과거 전기가 공장과 도시의 구조를 바꿨듯, 산업용 AI는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
- 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로 격상

#### 산업 AI의 전제는 '신뢰성'

- 산업 현장에서는 AI의 환각과 불확실성이 곧 사고·손실로 직결
- 범용 모델이 아닌, 검증된 산업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 기반의 산업 특화 AI를 강조
- 30개 산업 분야 데이터와 1,500명 이상 AI 전문가 역량을 Siemens Xcelerator 플랫폼에 집약

#### 상호 가속으로 완성되는 산업 AI 스택

- NVIDIA, Microsoft와의 초협력을 통해 디지털 트윈 컴포저(Digital Twin Composer) 공개
- 지멘스 EDA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 Vera Rubin 설계를 가속
- 엔비디아의 AI 칩은 지멘스 산업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운영 성능을 극대화

## 4. 기조 연설 (Roland Busch) - '상호 가속'이 산업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전제 조건

젠슨 황은 지멘스 EDA가 차세대 GPU '베라 루빈' 설계의 핵심임을 밝히며, 이를 'Mutual Acceleration(상호 가속)' 관계로 규정하고 강조했습니다.



- (상단) 젠슨황과 토크쇼 준비, 젠슨황 소개
- (하단) HD현대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산업용 AI의 가장 완성도 높은 사례로 직접 언급

- (상단) Roland Busch 가 AI·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공장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Athina Kanioura (CEO, Latin America and Global CSO, PepsiCo)를 연사로 초청
- (하단) Athina Kanioura는 지멘스·엔비디아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창고를 사전 시뮬레이션·검증·최적화하고 있음을 강조

## 5. 기조 연설 (Joe Creed) - 건설·광산·중장비 현장은 AI와 자율 기술의 가치가 가장 크게 증폭되는 공간

Caterpillar의 기조연설은 제조·중장비 산업에서의 AI 경쟁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통해 '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주제 : From Dirt to Data: 중장비에서 데이터·AI 기업으로의 전환
- 연사 : 조 크리드 (Joe Creed) Caterpillar CEO
- 일시 : 1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 장소 : 베네시안(Venetian), Palazzo Ballroom

### 핵심 주제 및 내용

#### • 100년 된 중장비 기업의 정체성 변화

- 중장비 + 데이터 + AI 서비스의 결합으로 자율주행·AI 기반 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 AI·머신러닝·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무인 굴착기, 자율주행 광산 트럭 사례 시연 → 중장비 스스로 지형을 인식하고 굴착·적재·이송 작업 수행

#### • AI의 가치는 인간의 안전과 생산성 동시 실현

-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 → 인명사고 감소 → 생산성 증가
- 자동화·원격운영·자율주행으로 중장비 운용 현장의 문제 해소

#### • AI 경쟁은 소프트웨어·디지털 트윈 → 건설·광산 현장으로 이동

### 주요 시사점



우리는 더 이상 중장비를 팔고, 땅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캐터필러는 흙을 파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학습·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 AI·자율주행의 '승부처'는 산업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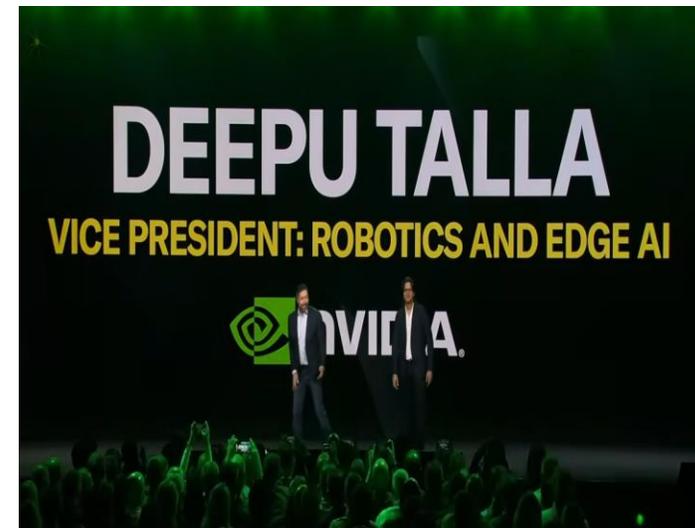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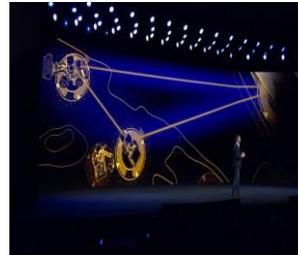
- AI 경쟁은 'Physical World'로 이동
- 로봇택시 보다 광산·건설 장비가 먼저 자율주행으로 이동 전망 → ROI가 명확하고 규제 리스크가 낮음

### 제조·중장비 업체의 정체성 변화

- 중장비에 AI가 이식되면서 중장비를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로봇으로 설계 → 운전석이 없는 중장비 출시
- 산업 AI 운영 기업으로 전환 : 중장비 업체의 목표는 현장 전체의 운영 최적화 → 굴착기·트럭·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AI 운영 체계로 통합

## 5. 기초 연설 (Joe Creed) - 캐터필러는 물리세계의 엔비디아

조크리드는 오프라인에서 작동하고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엔비디아의 Jetson Thor를 탑재한 Cat AI 어시스턴트와 휠 로더·굴착기 등 5 종 자율주행 장비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기술 투자 2.5 배 확대와 2,500 만 달러 AI 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 캐터필러, 'CAT AI 어시스턴트' 공개
- AI가 작업자를 대체하지 않고 보조한다는 Joe Creed의 메시지를 구현

- 운전자가 “Hey Cat, 시작 방법을 알려줘 (Hey Cat, how do I get started?)”라고 음성 명령을 내리자, 장비에 탑재된 AI 시스템이 즉각 음성으로 응답하며 굴착기 암을 구동

- NVIDIA 로보틱스 및 엣지 AI 부문 부사장인 Deepu Talla 소개
- 캐터필러는 NVIDIA와 Physical AI 동맹 강조
- (NVIDIA는 두뇌, 캐터필러는 물리세계 제공)

### 중공업 현장을 위한 엣지·오프라인 AI 구현

- NVIDIA Jetson Thor 기반 엣지 AI를 중장비에 직접 탑재
-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현장에서 실시간 추론·판단·제어 가능
- 먼지·진동·소음·연결 불안정 등 극한 물리 환경에서 Physical AI 구현

### 자연어 기반 '현장형 AI 어시스턴트'와 신뢰 가능한 컨텍스트 구현

- Cat AI Assistant를 통해 음성으로 장비 제어·작업 가이드·안전 경고 제공
- Helios 데이터 플랫폼으로 기계 상태·작업 맥락을 구조화
- 범용 AI가 아닌 신뢰 가능한 산업 컨텍스트 기반 AI 구현

###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산업 확장

- NVIDIA Omniverse + OpenUSD를 활용한 공장 디지털 트윈 시범 운영
- AI 인프라(엔비디아)와 물리 산업 시스템(캐터필러)이 결합된 확장 가능한 산업 AI 스택 구축

## 6. 기조 연설 (Yannick Bolloré) - AI는 인간의 창의력을 증폭시키는 장치

야닉 볼로레는 CES 2026에서 “AI를 선택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전사적으로 내재화했는가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HAVAS



- 주제 : 인간-AI 창의성을 위한 대담한 비전
- 연사 : 야닉 볼로레 (Yannick Bolloré) 하바스 CEO & Vivendi 감독이사회 의장
- 일시 : 1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베네시안 (Venetian), Palazzo Ballroom

#### 핵심 주제 및 내용

- AI 도입 여부가 기업 가치와 성장률을 결정
  - 기존 광고업계 성장률 격차는 2~3% 수준이었으나, AI 도입 여부에 따라 최고·최저 기업 간 10% 격차 발생
- 2.3만명 전 직원에게 AI 활용 강제하면서 AI를 전사 역량화 추진
  - 매출의 37% (10억 유로)를 AI·데이터·기술에 투자
  - 3D·콘텐츠 제작을 AI 기반으로 전환 → 비용 15~50% 절감
  - 사진 한 장으로 15분 만에 영화 예고편 제작 시연
-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AVA’ 공개
  - GPT-5, Claude, Gemini 등 멀티 LLM 통합 플랫폼 (직원들의 업무 환경)

### 주요 시사점

#### AI는 선택적 도구가 아니라 ‘경영 시스템’

-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전사적 내재화 수준이 기업 가치와 성장률을 결정
- 파일럿·부분 적용으로는 성과 한계 명확
- AI는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직·의사결정·업무방식 전체를 재설계하는 경영 인프라

#### AI 전환의 성패는 기술보다 ‘조직 설계’

- 과거 디지털 전환 실패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조직이 분화
- AI는 별도 부서가 아닌 모든 직원의 기본 역량 (Default)이 되어야 함
- 교육·인증·플랫폼을 통해 AI 활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경쟁력 격차 확대

#### AI 시대의 차별화 요소는 ‘신뢰와 인간 창의성’

- 환각·딥페이크·정보 과잉 환경에서 신뢰 가능한 브랜드와 데이터 관리 역량이 핵심
- 플랫폼·에이전트·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최종 경쟁력은 인간의 창의성·판단·책임에 귀결
-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역량을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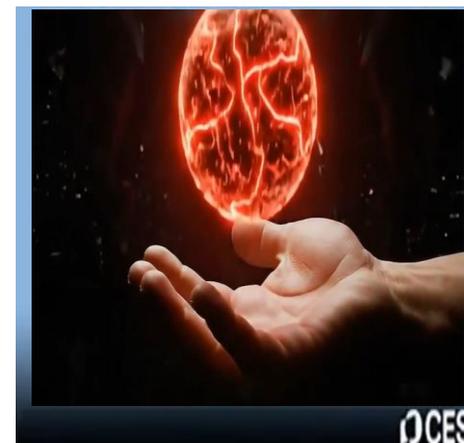
## 6. 기조 연설 (Yannick Bolloré) - AI를 쓰는 에이전시가, 쓰지 않는 에이전시를 대체한다

야닉 볼로레는 AI 시대의 승자는 AI를 조직의 기본값으로 설계하고, 신뢰와 인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사 Creative AI 플랫폼, '아바(Ava)'와 제작 솔루션 '프로세 온 픽셀(Prose on Pixels)'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 슈퍼 AI 비서 '아바(Ava)'와 제작 솔루션 '프로세 온 픽셀(Prose on Pixels)' 공개



- (오른쪽 상단) 엔터프라이즈 AI Creative Platform AVA 공개 하면서 AI가 가져올 산업의 파괴적 혁신과 기회를 강조
  - 기업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프롬프트로 창의성 발휘
- (오른쪽 하단) 하바스의 제작 솔루션 '프로세 온 픽셀 (Prose on Pixels)'의 성능 시연
  - 무대에 오른 관객 자원봉사자의 사진을 한 장 찍은 뒤, 약 15분 만에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고품질의 서부 영화 스타일 예고편을 생성



## 7. 기초 연설 (Bob Sternfels & Hemant Taneja) - AI 도입 실험의 종료, 기업 구조적 전환의 시작

밥 스텐펠스와 헤먼트 타네자는 AI 실험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AI를 전제로 기업과 산업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AI는 선택이 아니라, CEO·CFO·이사회에 즉각적 행동이 요구되는 경영 의제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McKinsey & Company



- 주제 : AI 실험은 종료, 전환의 시점 (AI가 재정의하는 조직과 투자 전략)
- 연사 : 밥 스텐펠스 (Bob Sternfels) 맥킨지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헤만트 타네자 (Hemant Taneja) 제너럴 카탈리스트 CEO
- 일시 : 1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베네치안 (Venetian), Palazzo Ballroom

### 핵심 주제 및 내용

- 1조 달러 기업이 1년 만에 등장하는 시대 - AI가 바꾼 기업 성장의 공식
  - 현재 변화 속도는 '워프 속도 (warp speed)', ChatGPT 출시 기점은 사실상 BC/AD와 상응
- 수백 개 이력서를 보내도 답이 없는 시대, AI가 바꾼 취업과 인재 육성의 공식
  -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역할을 전면 재배치
  - 대면·현장·고객 접점 인력 +25%, 비대면·백오피스·지원 인력 - 25%, 이를 통한 전체 산출물은 10% 증대라는 25<sup>2</sup> 법칙 제시
- AI 투자의 기준은 미래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보다는 즉각적인 ROI가 우선
  - 현장 생산성·인력난·비용 구조를 바꾸는 Physical AI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

### 주요 시사점

#### AI 전략은 '성장 전략' 이전에 생존 전략

-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서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로 이동
- AI 전략은 T 전략이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아님
- 2026년 이후 경쟁력은 'AI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AI로 운영되는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 인력 감축 중심의 자동화 전략은 한계

- AI 시대에는 직원 1명이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를 지휘,
- 인간은 '실행자'에서 AI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로 변모
  - 문제 해결자 → 문제 정의자
  - 개인 역량 → AI 협업 지휘 역량

#### 기술보다는 산업을 인수

- 기술 도입 속도가 아니라 조직과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결단이 요구
-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하기 보다는, 비효율·정체된 기존 산업 (예: 병원, 헬스케어 시스템)을 직접 인수하고 AI로 운영 구조 자체를 재설계

## 7. 기조 연설 (Bob Sternfels & Hemant Taneja) - AI를 과소평가하는 순간, 재설계와 성장의 기회 상실

밥 스텐펠스와 헤먼트 타네자는 과거의 혁신이 사소한 개선으로 오해되었듯, AI를 단순한 도구나 기능으로 과소평가하는 순간 기업은 구조적 전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회를 맡은 ALL IN PODCAST의 제이슨 칼라카니스, 맥킨지의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밥 스텐펠스, 제너럴 캐털리스 CEO 헤먼트 타네자(왼쪽 부터)

\*ALL IN PODCAST : 실리콘 밸리에서 테크 소식을 전달하는 미디어

- (우측 끝) Jason Calacanis 는 블랙베리와 에너지 드링크가 등장했을 당시, “전화가 좀 좋아진 것”, “카페인 음료 하나 더 나온 것” 정도로 과소평가되었던 과거를 상기 시키는 대화 중
  - 스마트폰 → 생활·산업·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재편
  - 에너지드링크 → 새로운 소비 카테고리과 글로벌 브랜드 탄생

- 이 소품들은 곧바로 AI에 대한 비유로 연결, 큰 변화는 ‘작아 보이는 형태’로 시작 → AI를 과소 평가하는 순간, 성장 타이밍을 놓친다는 의미
- CEO·CFO·이사회가 즉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시각적인 경고

## CES 2026 기조연설에서 본 핵심 메시지

CES 2026 기조연설은 AI가 이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 운영을 이끄는 기본 전제이자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	AI 경쟁의 중심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추론·행동·운영까지 포함한 ‘실행 능력’으로 이동
2	AI는 더 이상 IT 기술이 아니라, 컴퓨팅·전력·데이터센터를 전제로 한 산업 인프라이자 경영 자산
3	Physical AI(로보틱스·자율주행·산업 장비)는 AI 가치가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핵심 전장
4	AI의 승패는 기기 - 클라우드 - 산업 현장을 관통하는 통합 플랫폼과 생태계 설계에서 결정
5	AI는 선택 가능한 혁신이 아니라, CEO·이사회 차원의 즉각적 결단이 요구되는 전사적 구조 전환 과제

# Table of Contents

- I. CES 2026 개요
-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CES 2026 기초 연설의 핵심 메시지

##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1. Physical AI의 현실화 :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2.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3.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 脫스펙경쟁
4. 자동차는 AI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
5. 생활 공간의 지능화

- V. 결론 :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Physical AI의 현실화 :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1/5)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폼팩터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행·자세 제어·양팔 작업을 실제로 시연함으로써 연구용 프로토타입을 넘어 산업 현장과 생활 환경에 투입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Physical AI의 부상

Physical AI는 현실 세계를 인지·추론·학습한 결과를 실시간 물리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지능 시스템

### Physical AI의 부상 이유

- 생성형 AI의 한계 도달  
: 실제로 일하는 AI의 필요성 증가
  - 산업 현장에서 지식 생성이 아닌 물리적 작업이 요구
- 로봇틱스 기술의 성숙기 진입  
: 실험에서 실전으로 전환
  - 비전 AI, 엣지 컴퓨팅, 센서 및 액추에이터 등 동시 성숙기 진입
- 빅테크들의 피지컬 AI 시장 선점 경쟁 과열

LVCC 전시장을 점령한 피지컬 AI

### Physical AI 핵심 폼팩터

- 휴머노이드
- 다관절 로봇
- 사족보행 로봇
- AMR
- 자율주행차

## CES 2026 주목할 만한 등장

산업 현장과 생활 공간에 본격 투입 예정인 휴머노이드·로봇틱스 등장  
→ 향후 경쟁의 핵심은 ‘균형 잡힌 2족 보행’과 ‘정교한 손’



로보테라(Robotera)



아지봇(AGIBOT)



유니트리(Unitree)



갈봇(GALBOT)



현대차아틀라스



현대위아 자율주행 물류로봇(AMR)



LG전자클로이드

-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 기업 중 55%는 중국 업체
- 중국 정부 지원을 받은 로보테라(Robotera), 아지봇(AGIBOT), 유니트리(Unitree), 갈봇(GALBOT)등이 North Hall 다수 점유
- 현대차와 LG는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협업 가능성을 제시

# Physical AI의 현실화 :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2/5)

North Hall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데모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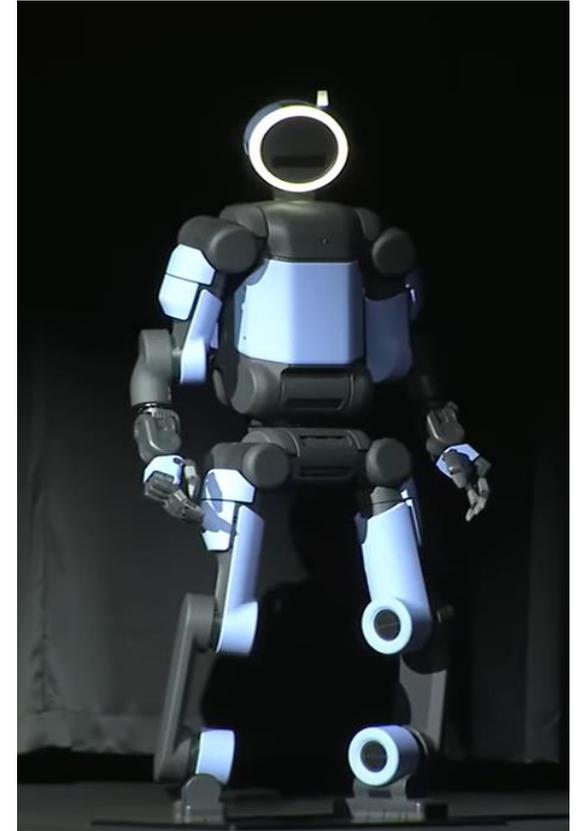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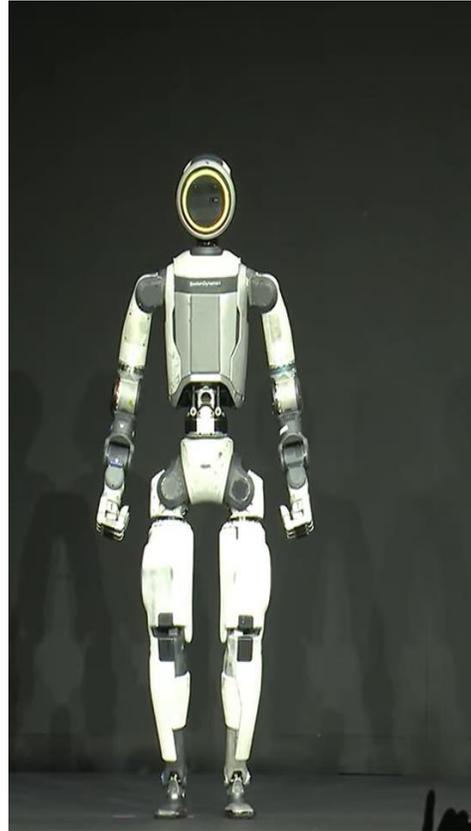
# Physical AI의 현실화 :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3/5)

현대자동차그룹은 인간 중심 AI 로봇틱스가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X 보스턴 다이내믹스 :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제시



스팟의 군무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Atlas)와 인간과의 협업 가능성 제시

# Physical AI의 현실화 :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4/5)

현대자동차그룹은 ‘Partnering Human Progress (AI 로봇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 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 현대자동차그룹 : 산업 현장에서 로봇틱스와 인간의 협업 가능성 제시

테크랩(Tech Lab.):  
제조 산업 현장 투입단계에 근접  
사람과 협업하며 부품 적재·정밀  
조립·검수 작업 수행



초기 연구 모델부터 현재까지 기술 진화 과정 전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

제조·산업 현장의 AI 로봇틱스 적용  
엑스블 솔더, 스팟의 산업 설비 점검·  
관리 자동화 시연



CES 2026 현대자동차그룹 전시관 전경



엑스블 솔더 (X-ble Shoulder)  
무동력 구조, 근골격 부담 감소



로봇개 ‘스팟’  
문 개폐 확인, 열·진동 데이터 수집

일상과 산업으로의 확장

자율주행·전동화 × 로봇틱스 결합  
로봇 비전과 생태계 전략을 직관적으로 전달



MobED(모베드) : TopModule 결합 콘셉트로 플랫폼화 전략 강조



로보택시 (아이오닉 5 기반),  
모셔널과 공동 개발, SAE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적용



# Physical AI의 현실화 :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5/5)

LG전자는 CES 2026에서 로봇을 단독 기술이 아닌, 가전·공간·서비스를 연결하는 생활형 Physical AI로 제시했습니다.

## LG 전자: 휴머노이드로 가사 노동의 종말과 지능형 자동화



LVCC 센트럴 LG 관 입구



가사로봇 클로이드



세탁 빨래 후 세탁물 정리 중



아침식사 준비중

- 가정·상업 공간에서 작동하는 생활 밀착형 로봇 ‘클로이드’ 시연
- 가전·공간·서비스와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

- 로봇은 독립된 제품이 아니라 LG 가전·공간·서비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 “로봇이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집중하고, Physical AI를 생활 공간(OS) 관점에서 구현

# Table of Contents

- I. CES 2026 개요
-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CES 2026 기초 연설의 핵심 메시지

##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1. Physical AI의 현실화: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2.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3.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脫스펙경쟁
4. 자동차는 AI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
5. 생활 공간의 지능화

- V. 결론: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1/4)

NVIDIA와 AMD는 AI 경쟁의 초점이 단순한 칩 성능을 넘어, AI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 역량 전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NVIDIA : AI 풀스택 전략

엔비디아는 AI를 단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 정의  
GPU, 네트워크, 디지털 트윈 등 전체 스택을 장악 시도 추진 중

### 칩-랙-데이터센터 전체를 연결

AI를 대규모로 학습·추론·운영하는  
표준 아키텍처



- Blackwell 기반 GB200 NVL / DGX  
- 랙 스케일 AI 컴퓨팅으로  
LLM·멀티모달의 대량 학습/추론을  
표준화

### 산업·제조 디지털 트윈 운영

현실을 가상에서 먼저 실행하고  
검증하는 운영 체계



- NVIDIA Omniverse  
- 공장·물류·에너지·도시 인프라를  
실시간 3D 시뮬레이션  
- 설비 배치, 로봇 동선,  
생산성·안전성·에너지 흐름 사전 검증

## AMD : 풀스택 컴퓨팅 전략

칩 성능 경쟁에서 '랙·시스템·표준' 경쟁에 집중  
클라우드 - PC - 엣지를 아우르는 '풀스택 컴퓨팅' 전략

### GPU 단일 성능 경쟁을 랙단위로 전환



리사수 CEO 기조 연설 중  
Helios 랙 시스템 공개

- AMD Helios는 개별 GPU 성능을 겨루던  
기존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전환
- 네트워크·CPU·GPU를 하나의  
아키텍처로 통합  
→ 칩이 아닌 인프라 수준의 최적화
- AI 확산의 병목인 비용·지연·전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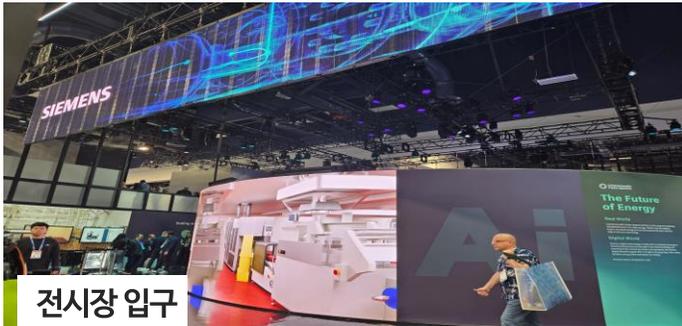
#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2/4) - SIEMENS

CES2026에서 지멘스는 산업용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 어떻게 운영하며 →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의 세 가지 주제를 각기 다른 공간에 전시하고, 전체 동선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 주제: AI를 '산업 운영체제(OS)'로 재정의 하고, 실제 현장(Physical AI)까지 확장 선언

## Siemens의 산업용 AI의 '정의'

AI는 기능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는 '운영체제(OS)'이다.



전시장 입구

### 산업용 AI에 대한 지멘스의 정의

- PLM - 엔지니어링 - 제조(MES) - 운영데이터를 하나의 연속된 산업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
- 분석 도구를 넘어, 의사결정과 현장 운영을 직접 구동하는 운영체제(OS) 레이어로 작동
- 안정적인 전력·에너지 인프라를 전제로 하며, 전력은 Industrial AI 구현을 위한 필수 기반 조건

## 디지털 트윈의 위상 재조정

디지털 트윈은 '설계 도구'가 아니라 '실시간 의사결정 인프라'이다.



디지털 트윈 컴포저 → 펩시코 활용 사례

### 디지털 트윈의 ROI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CAPEX·리스크 제거

- 가상 환경에서 공정·라인·로봇·물류를 먼저 검증
- 실제 MES/센서/PLC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Living Twin
- '만들기 전에 실패를 제거'하는 구조

## Physical AI의 검증 플랫폼으로 확대

Physical AI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좌) 전시장 입구 (우) 롤랜드 부쉬(지멘스 CEO)는 기초연설에서 피지컬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의 협업 강조

- 자율 시스템의 안전·신뢰성·규제 대응을 시뮬레이션으로 해결
- 로봇·자율주행·AMR·휴머노이드 확산의 전제 조건은 현실을 대체하는 디지털 검증 인프라 → 지멘스 디지털 트윈 컴포저 강조

#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3/4) - Dassault

Dassault Systemes는 CES 2026에서 AI로 산업을 '자동화'하는 미래가 아니라, Virtual Twin으로 산업과 인간의 '선택을 정교화'하는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주제: Virtual Twin으로 의사결정 이전 단계를 정교화

Human / Life Sciences Virtual Twin :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의 미래 제시



전시관 전면 → 체험관 입구 → 체험관 내 데모 (e.g. 임상 전 단계에서 치료·수술·약물 반응 검증)

- 인체 장기·질병·약물 반응을 가상 모델로 시뮬레이션
- 임상 이전 단계에서 실패 가능성 제거
- CES에서 보기 드문 'Human Digital Twin' 강조

- Human-centric 콘텐츠 비중 확대
- 산업·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인체, 헬스케어, 생명과학 등 Human Virtual Twin을 핵심 차별 요소로 제시
- 생산성보다 안전·지속가능성·인간 영향을 강조

#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4/4) - 산업·도시·헬스케어·개인의 삶까지 가상에서 설계·검증

CES 2026에서 지멘스와 다쏘는 미래 경쟁력의 본질이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닌, '현실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상에서 이해하고, 설계하며, 운영하느냐'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멘스: AI 운영이 경쟁력 vs. 다쏘: 설계가 경쟁력

## SIEMENS

인프라는 구축의 대상이 아니라, AI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지멘스 인텔리전스 익스피리언스 (출처: Siemens)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AI 기반 '산업·인프라 운영체계'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인프라 운영
  - AI + 자동화 + 데이터가 결합된 산업 운영 기술
  - 제조·에너지·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Siemens Intelligence Experience'
- 디지털 트윈 + AI + 자동화를 통해 공장·전력망·도시·교통을 하나의 운영체계(OS)로 통합 →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AI 운영 플랫폼 기업'임을 선언

## DASSAULT SYSTEMES

현실을 만들기 전에, 가상에서 먼저 완성해야 한다.



인도 항공기 제조사 '라페엠피브르(Raphe mPhibr)'에 버추얼 트윈 플랫폼 '3D익스피리언스' 도입.



병원 투석실(dialysis unit) 전체를 Virtual Twin(가상 트윈)으로 구현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Virtual Twin 기반 '삶과 산업을 설계하는 가상 세계'
- 3DEXPERIENCE 기반 Virtual Twin을 통해 제조 효율을 넘어 건강, 웰니스,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산업 AI의 범위 확장
  - 공장·도시·헬스케어를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 인체·장기 기반 3D 모델
- 경쟁의 초점을 CAPEX → 리스크 제거·시간 단축으로 이동

# Table of Contents

- I. CES 2026 개요
-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CES 2026 기초 연설의 핵심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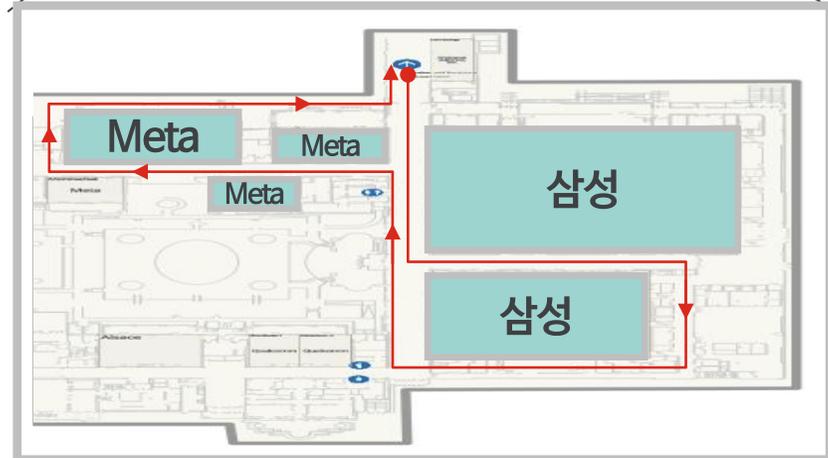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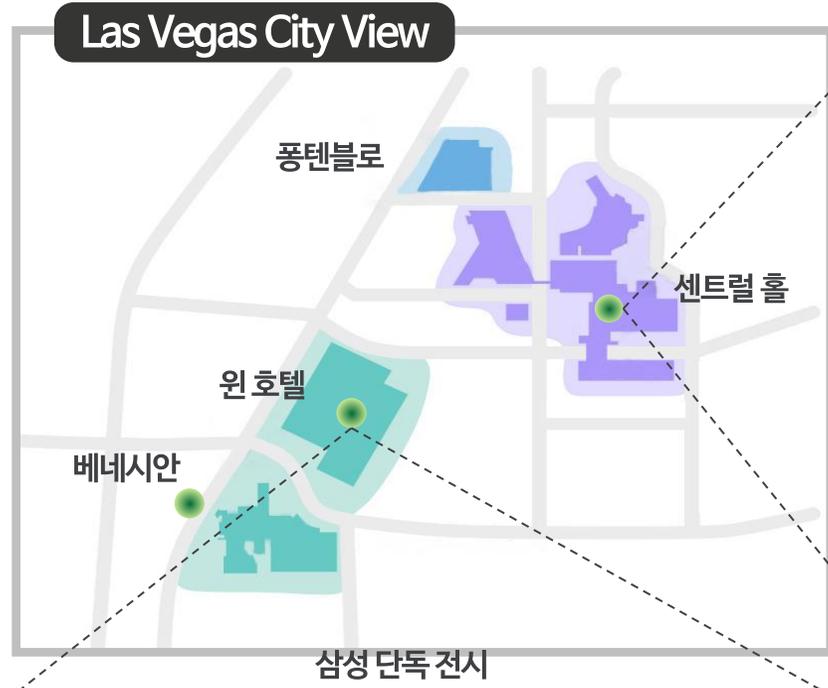
##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1. Physical AI의 현실화: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2.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3.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脫스펙 경쟁
4. 자동차는 AI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
5. 생활 공간의 지능화

- V. 결론: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 脫스펙경쟁 (1/5) - 중국 테크 기업은 LVCC의 중앙 무대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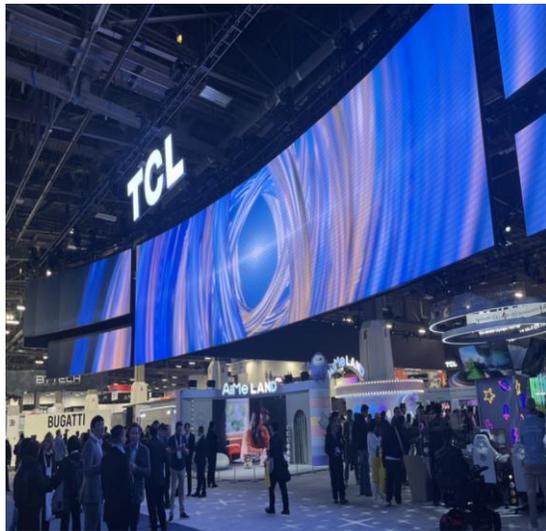
- 올해 특이 사항** LVCC 센트럴 홀에 대부분의 전시공간과 모든 동선을 중국 기업이 점유
- (LVCC 센트럴) TV·디스플레이 중심의 하드웨어 쇼케이스 색채는 유지
    - TCL·하이센스 등 중국 가전 대형 브랜드가 입구 전면과 핵심 구역을 차지 → 중국 메이저 브랜드 존 성격 강화
    - Dreame는 단순한 로봇청소기 브랜드가 아니라 AI 기반 스마트 가전·생활 자동화 기업으로 포지셔닝
  - (원호텔) 삼성전자는 메인 전시장을 LVCC 센트럴 홀에서 원호텔로 이전 → 프리미엄·프라이빗 쇼케이스로 전환
  - (폰텐블로) CTA의 신설 커뮤니티 CES 파운더리 및 엔비디아 주요 쇼케이스 개최
  - (LVCC 웨스트) AI 인프라·모빌리티·산업 테크의 핵심
  - (LVCC 노스) 전력·에너지·산업 인프라 기업 집중
  - (베네시안) 글로벌 스타트업, AI·SaaS·딥테크 중심 전시

#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 脫스펙경쟁 (2/5) - 中 가전, 미니에서 대형으로 전선 확대

CES 2026은 중국 가전 브랜드가 가성비를 넘어 기술력까지 추격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전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려는 ‘주도권 경쟁’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 프리미엄 TV 시장 구조의 변화: 고화질 경쟁에서 초대형 콘텐츠 경험 중심

### TCL: TV를 AI 인터페이스이자 XR 확장의 출발점으로 재정의



센터홀 중심부에TCL 전시관 조성



'TCLSQD-미니LED TV'가 전시

- TCL은 패널(CSOT) - 모듈 -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 한 제조 플랫폼 플레이로 변모 (삼성 철수 이후 센터홀 홀 공간 점유 자체가 리더십 선언)
- 차세대 디스플레이(e.g. Mini LED TV 'X11L', SQD-미니LED, 마이크로 RGB 계열)와 AR 글래스 '레이네오(RayNeo)' 전시  
→ 디스플레이-디바이스- XR 을 연결하는 생태계 전시

### Hisense: TV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의 몰입 공간



하이센스의 116형 RGB 미니 LED TV

- ‘더 밝은 삶을 위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초대형 Mini LED/ULED TV와 레이저 TV 기반 홈시네마 솔루션 전시
- 독자 AI 화질 칩셋(Hi-View AI 엔진 계열)과 이를 활용한 지능형 화질·사운드 조정 기능을 차별점으로 강조
- 스마트홈 UX, 스포츠·엔터 콘텐츠 연계 시연 → TV를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닌 엔터테인먼트·스포츠·가정용 몰입 공간으로 포지셔닝

#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 脫스펙경쟁 (3/5) - 삼성과 LG의 대응

중국 업체들이 더 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제조 경쟁력'을 전시하는 반면, 삼성과 LG는 스펙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하여 AI가 제시하는 새로운 표준과 기준 및 미래 일상을 전시하였습니다.

## AI로 작동하는 미래 일상 제시

### 삼성 : 기술 역사(50년 혁신)를 통해 AI 전환의 정당성·연속성 강조



삼성관 입구: 예술 작품들로 만든 AI 갤러리가 관람객들을 맞이  
삼성 가전의 50년 혁신의 역사 제시  
(출처: CES 2026 티저 영상)



더퍼스트룩 2026주제 영상  
-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 (Your Companion to AI Living)  
(출처: The First Look 2026 공식 티저 영상)

- CES 개막 전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 The First Look 2026 (1/4일, 원호텔) 개최
- 삼성전자가 CES를 맞아 최초로 '역사 서사'를 전면에 배치  
→ 삼성 AI 가전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AI는 가전의 본질적 진화 경로의 연장선 의미  
- 1980~90년대 마이크로컴퓨터 칩 에어컨, 화면 탑재 전자레인지, 음성 인식 냉장고 등 당시에는 '과도해 보였던 혁신'이 시간이 지나 표준이 되었음을 상기
- AI를 도구(tool)가 아닌 관계적 존재(companion)로 정의, 중국 브랜드의 '스펙·사이즈·가격' 과의 의도적 차별화

### LG : 경험을 설계하는 AI에 중점



LG전자 전시관 입구



LG OLED 디스플레이

- LG의 전시 전략은 '먼저 보여주고 (Unveiled) → 방향을 말하고 (World Premiere) → 끝까지 증명하는 (Preview)' 3단 구조로 설계  
- CES Unveiled (1/4 일, 만달레이 베이 호텔) - CES 트렌드 선점, LG 기준점 설정  
- LG World Premiere (1/5일, 만달레이 베이 호텔) - AI·로봇·미래 생활 서사 및 비전 선언  
- Preview 2026 (1/4~8, 폰텐블로 호텔) - LG 단독 프라이빗 쇼룸 (기술·제품 실체 체험)
- 로봇과 AI는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체' - 로봇은 쇼가 아니라 가사 노동 해방 수단
- 차세대 디스플레이 (LG Display) - B2B·자동차·XR용 디스플레이 주도권 확보

##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 脫스펙경쟁 (4/5) - 삼성 단독관

삼성 전시관 입구는 기술을 나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삼성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일상의 경험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서사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개별 제품이 전시가 아닌 하나의 전략적 이야기를 제시하였습니다.

### 삼성 전시관 입구: 삼성의 기술 혁신 서사 체험



삼성전자의 CES 옥외광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월드 호텔에 노출



삼성전자의 CES 옥외광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월드 호텔에 노출

#### 올해 특이 사항

- 리조트월드 호텔 (ResortWorld Las Vegas)에서 옥외광고 진행
-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옥외 광고로 존재감 과시

- 개별 제품 소개 이전에 삼성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온 기업인가를 먼저 각인
-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기술 진화의 흐름
- 하드웨어 혁신 → AI 결합 → 생활 환경 (Companion)으로의 확장

#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脫스펙경쟁 (5/5) - 삼성 단독관

AI를 '기능'이 아닌 '생활 환경(Environment)'으로 재정의하며, 가전 제조사를 넘어 AI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 일상 속 AI 동반자 (AI Companion) →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 통합

## 홈 컴패니언 (Home Companion)



홈 컴패니언 전시존 입구 (좌)

비스포크 AI 냉장고는 카메라를 통해 재료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우)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집안일 해방'을 목표로 하는 AI 가전 중심의 생활 자동화
- 가전의 가치가 '편의'에서 안전·시간 절감·경제적 혜택으로 확장  
→ AI 도입이 실제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는 구조 제시
- Gemini 탑재 비스포크 냉장고: 식재료 인식 범위 확대, '오늘 뭐 먹지?'·Video-to-Recipe·FoodNote 기능 제공
- AI 로봇청소기: Qualcomm 칩셋, RGB + 듀얼 카메라 3D 센서, 투명 액체까지 인식
- AI 의류 관리 솔루션: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 AI 콤팩트 세탁건조기, 세탁 - 건조 - 관리 통합

## 엔터테인먼트 컴패니언 (Entertainment Companion)



엔터테인먼트 컴패니언 전시존 입구 (좌)

'2026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마이크로 RGB 130인치 제품(우)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TV를 '보는 기기'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전환
- TV를 엔터테인먼트 기기에서 생활 AI 허브로 재정의
- 디스플레이 경쟁을 화질이 아닌 지능·경험 경쟁으로 전환
-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 공개 (향후 다양한 사이즈 확대)
- 타이젠 OS 7년 업그레이드 지원

## 케어 컴패니언 (Care Companion)



케어 컴패니언 전시존 입구 (좌)

가족 건강 케어 경험 제공(우)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헬스케어 중심이 병원에서 집과 일상 데이터로 이동
- 사후 치료 중심 의료 → AI 기반 예방 의료로 전환
- 뇌 건강 기술 최초 공개
- 보행 속도, 손 움직임, 행동 패턴 분석  
→ 인지 저하·치매 조기 감지

# Table of Contents

- I. CES 2026 개요
-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CES 2026 기초 연설의 핵심 메시지

##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1. Physical AI의 현실화: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2.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3. 중국 테크의 공세와 국내 기업의 脫스펙경쟁
4.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봇틱스로 확대
5. 생활 공간의 지능화

- V. 결론: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보틱스로 확대 - 차량은 '이동 수단'이 아니라 AI 컴퓨팅 플랫폼

NVIDIA는 CES 2026에서 AI 컴퓨팅 역량을 통해 SDV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Qualcomm은 고도로 통합된 차량용 SoC를 중심으로 SDV의 현실적 구현 방식을 전시하며, Intel은 SDV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용 컴퓨팅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 SDV를 전제로 한 차량 아키텍처·컴퓨팅·OS 경쟁 중



SDV는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판단·운영하는  
Physical AI 시스템



NVIDIA DRIVE Hyperion Platform Achieves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NVIDIA는 SDV를 '차량용 컴퓨터'가 아니라 'Physical AI 노드'로 정의하고, SDV 구현을 위한 AI 플랫폼 전시
  - 차량용 AI 컴퓨팅 플랫폼(Drive 계열)
  - 자율주행·ADAS용 AI 추론 스택
  - 로보틱스·시뮬레이션(Omniverse) 연계
  - 차량 - 로봇 - 가상환경을 연결하는 통합 AI 아키텍처



SDV는 분산된 엣지 AI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



Qualcomm AI Engine in Snapdragon 8 Elite Gen 5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SDV는 하나의 거대한 칩이 아니라 연결된 SoC 네트워크로 정의
  - Snapdragon 기반 차량용 SoC
  - ADAS·IVI·커넥티비티 통합 플랫폼
  - 엣지 AI 기반 실시간 처리
  - 클라우드와 연계된 분산 컴퓨팅 구조



PC와 차량을 재정의하는 범용 컴퓨팅 플랫폼



Panther Lake 'Core Ultra Series 3' CPU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SDV를 위한 범용 차량 컴퓨팅 아키텍처
  - ADAS, IVI, 차량 제어 워크로드를 단일·통합 컴퓨팅 구조에서 처리 가능한 설계
  - 특정 기능 전용 ASIC이 아닌 CPU 중심 + AI 가속의 이중 컴퓨팅 구조
- 차량 전체를 하나의 IT 시스템으로 만드는 컴퓨팅 철학 제시

#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보틱스로 확대 - 차량은 지속 업데이트되는 AI 시스템

CES 2026에서 SDV 경쟁은 차량 성능의 비교가 아니라, 차량의 '운영·업데이트·확장 플랫폼'에 대한 구축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CES2026에서 나타난 SDV 경쟁의 본질

**경쟁 단위가 차량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데이터·플랫폼으로 이동

- SDV는 '옵션'이 아니라 차량 설계의 기본값
  - 차세대 라인업 전체의 기본 아키텍처로 제시
  - 중앙집중식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모듈화가 전제
  - SDV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양산 전제 조건
- 센서 논쟁, 레벨 경쟁은 후순위
  - 실시간 AI 추론, 안정적 컴퓨팅, 업데이트 가능성 → 자율주행 완성이 가는 기본 전제
- 콕핏UX가 SDV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
  - 디스플레이 크기 경쟁에서 멀티모달 AI 인터페이스 경쟁으로 전환
  - 운전자·탑승자·차량·외부 환경을 연결하는 주요 사용자 접점
  - SDV의 가치는 운전석에서 체감됨

## CES 2026 주목할 만한 전시

### AFEELA

Sony Honda Mobility

Autonomy · Augmentation · Affinity  
(차량을 넘어 공간과 시간을 확장하는 디지털 경험)



Sony Honda Mobility AFEELA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AFEELA의 SDV는 디바이스를 넘어 운전자가 머무는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 → 주행보다 체류 경험에 초점
- SDV의 전시는 UX에 집중
  - AFEELA 양산 예정 모델의 외관·차체 콘셉트
  - 인캐빈(In-Cabin) UX & 디지털 인터페이스
  - 센서·AI 기반 사용자 감정·상태 인지형 인터페이스



노이에 클라쎄 (Neue Klasse)<sup>1)</sup>에 집중  
(새로운 등급/새로운 세대)



신형 iX3

#### 주요 전시 내용 및 전략 메시지

- 디지털 경험 중심의 SDV 선언 모델 전시
  - BMW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어 클라쎄 적용 첫 양산 모델 공개
  - 아마존 협업 알렉사+ 기반 AI 개인 비서 탑재 및 고도화된 음성 제어 환경 제공
  - 윈드실드 하단 전폭 활용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 디스플레이 기술
- BMW는 SDV를 차량 내부에서 완성

#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보틱스로 확대 - 로보택시 상용화

CES 2026에서의 로보택시 전시는 자율주행의 '기술 문제'가 종료되고, '도시·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CES2026에서 나타난 로보택시의 상용화 수준

### 로보택시는 더 이상 '자율주행 기술 데모'가 아니라 상용화 중

- 로보택시는 '가능한 기술' 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는 산업으로 진입
  - 과거 CES에서 센서, 알고리즘, 레벨(Level 4/5) 논쟁
  - CES 2026에서는 운영중인 서비스, 도시확장, 안전, 책임 체계 논쟁으로 이동
- 로보택시는 AI 기술 경쟁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사업 경쟁' 으로 재 정의
  - SDV는 '차량 중심 플랫폼' 이지만, 로보택시는 '서비스 중심 플랫폼'
  - 승부는 결국 '운영하는 쪽' 으로 이동
- Zoox와 Waymo는 기술 시연 보다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한 제품 디자인에 더 집중
  - 승객 경험, 도심 운행 최적화, 플릿 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량 설계 중

## CES 2026 주목할 만한 전시

### ZOOX

로보택시 상용화를 전제로 재설계된 '미래형 서비스 전시' (운전석 핸들 없는 완전 자율 주행 차량)



8개 라이다를 장착한 족스



라스베이거스 운행중

- (목적 설계형 로보택시) 승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전용 모빌리티 제시
- (도시 교통 혁신) 안전·효율·친환경을 기반으로 로보택시 서비스의 도시 확장 추진
- (경험 중심 이동 공간) 이동 시간을 업무·휴식·소셜 활동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

### WAYMO

'기술 우위'가 아니라 '운영 우위'를 증명



6세대 Waymo Driver 탑재

- 미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약 1,500대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런던·도쿄 포함 20개 이상 도시로 확대 계획
- 신규 로보택시 도입 차종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지커 테스트용 미니밴을 전시
- 자율주행 시스템 'Waymo Driver'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대규모 시아키텍처를 적용

#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보틱스로 확대 - 자율 주행의 새로운 전장은 중장비와 농기계

CES 2026에서 John Deere, Caterpillar, Oshkosh의 전시는 자율주행의 승부처가 도로 위 승용차가 아니라, 농업·건설·공공 현장이라는 점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빠른 상용화 무대는 승용차가 아니라 산업 현장이며, Physical AI(로보틱스)는 중장비·농기계·특수차량에서 먼저 완성 단계 진입



수확 효율성과 정밀성을 극대화



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한 초대형 콤바인 X9

- 완전 자율 트랙터·농기계를 상용 제품 수준으로 전시
- 파종·제초·수확 등 농업 작업 전체를 자율화
- 비전 기반 인식 + 정밀 작업 알고리즘 중심



건설·광산 현장의 운영 최적화



자율 주행 장비인 CAT 777 AMT 트럭

- 무인 굴착기·휠로더·광산 트럭 등 대형 장비 자율 운용 전시
- AI·자율주행을 현장 운영 시스템으로 통합
- 건설·광산처럼 고위험·고비용 환경에서 검증 완료



OSHKOSH

군·공공 특수 임수 수행



고소작업차 형태의 AI 로봇 '봄 리프트'

- 민간 상용보다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 초점
- '운전자 제거' 보다 위험 환경에서 인간 보호가 목적

#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보틱스로 확대 -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의 등장

CES2026에서는 모빌리티의 중심이 승용차에서 목적 기반 플랫폼(PBV)과 운영 단위로 이동했으며, 자율화가 용이한 산업·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S 2026은 모빌리티 경쟁이 차량 기술을 넘어, 자율 주행을 전제로 목적 기반 플랫폼 설계와 운영·수익화로 이동 중



AC Future사의 확장형 구조 모바일 주거 플랫폼

- 확장형 구조 PBV: 거주 면적을 190 → 400sqft로 약 2배 확대
- 공간 확장 기술과 AI 기반 편의·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결합
- 전력·에너지 자립을 전제로 한 차세대 PBV형 주거 솔루션



탄성 바퀴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Ascender

- 탄성 바퀴 기술로 연석·계단을 바퀴 반경의 130%까지 극복, 도시 지형 제약을 해소
- 배송·순찰·물류 등 도심 다목적 운용이 가능한 차세대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빠른 확산 전망



싱가포르 모빌리티기업 Strutt의 'Strutt EV'

- 직관적 조작: 자연어 음성 명령 중심 제어와 소형 터치스크린 기반 주행 정보 표시
- 전지형 성능: 쿼드 모터·지능형 구동계·올터레인 힐로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 주행

# Table of Contents

- I. CES 2026 개요
-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 III. CES 2026 기조 연설의 핵심 메시지

##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1. Physical AI의 현실화: 휴머노이드·현장 로봇틱스의 본격 전개
2. AI는 산업 인프라로 진화
3. 중국 테크의 공세와 주요 기업의脫스펙경쟁
4.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봇틱스로 확대
5. 생활 공간의 지능화

- V. 결론: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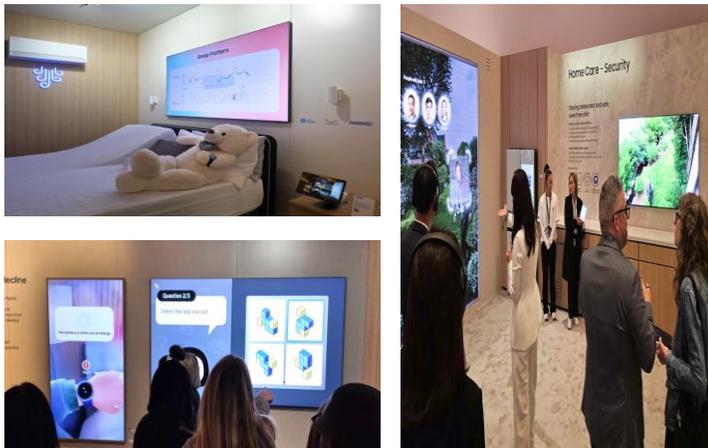
# 생활 공간의 지능화 (1/2) - 기기 연결을 넘어 '상황 인지 시스템' 으로 확장

생활 공간은 스마트 기기의 집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능형 보호망이자 초개인화된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일상에 스며든 AI: 집은 기기가 아니라 지능형 환경(Environment)으로 조성

###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기기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케어



삼성전자 전시관

- (좌상) 최적의 수면환경 조성, (좌하) 인지 저하 모니터링 (가족내 치매 환자 인지), (우) 수상한 사람이 감지 알림

### 시각 지능 중심의 '공간의 지능화'

사용자의 위치와 시선에 따라 공간 전체가 반응하는 인터페이스 환경 조성



삼성전자 전시관 '130형 마이크로 RGB TV'

- 비전 AI 컴패니언 플랫폼: 사용자 선호에 따라 콘텐츠·사운드·기기 간 정보를 연동하는 사용자 중심 상호작용 강화

### 지능형 보호망

비접촉 바이오 센싱 기술이 탑재되어 사용자들의 건강 정보 모니터링



아마존의 벽걸이형 스마트 디스플레이

- Echo Show 15와 연동되는 Alexa Together는 원격 돌봄을 위한 통합 플랫폼. 알렉사 앱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 과 웰빙 모니터링 가능 제공

# 생활 공간의 지능화 (2/2) - 기기 연결을 넘어 '상황 인지 시스템' 으로 확장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 Gemini 통합으로 기기 간 연결성을 하나의 '기능'이 아닌 '경험'으로 구현한 초개인화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Bespoke AI가전 라인업



삼성전자: AI 세탁기 및 건조기



삼성전자: 맞춤형 AI 냉장고 패밀리 허브



LG 시그니처 냉장고와 오븐레인지



- (삼성전자) 플랫폼 중심의 생활공간 지능화(삼성은 집을 '시가상시 운영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재정의)
  - 디바이스 간 연속 경험: TV·모바일·가전 간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Cross-Device UX
  - 초개인화 생활 환경: 사용자·가족 단위로 다른 환경과 기능을 자동 적용
- (LG 전자) 생활 밀착형 공감 지능과 실사용 중심 AI
  - 사용자의 상태·습관을 고려한 정서·상황 인지 기반 제어
  - 공간 적응형 가전: 집 구조·사용 방식에 맞춰 가전이 환경에 적응

# Table of Contents

I. CES 2026 개요

II. CES 2026 주목해야 할 변화

III. CES 2026 기조 연설의 핵심 메시지

IV. CES 2026에서 나타난 핵심 트렌드

## V. 결론 : CES 2026 주요 시사점 및 전망

- ✓ CES 2026에서 확인한 산업 및 기술 트렌드
- ✓ (참고) Deloitte Skybox &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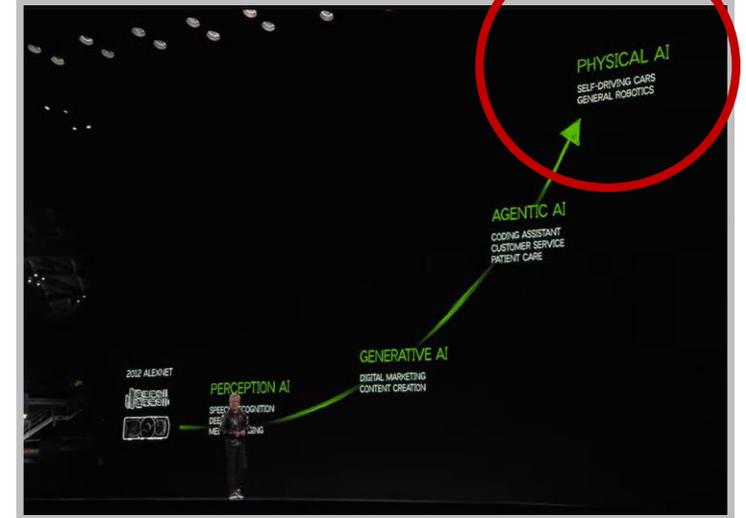
# CES 2026에서 확인한 산업 및 기술 트렌드

01	Physical AI는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S 2026 현장에서는 AI 로봇이 다수 전시되며 로봇 = AI라는 등식이 자동적으로 사용됐으나, 지금은 'Physical AI의 시작점'일 뿐 완성 단계는 아님</li> <li>-로보틱스 기술(e.g. 액추에이터 등)은 충분히 성숙, 그러나 AI 기반 자율 학습·적응은 초기 단계</li> <li>➔ (현장 확인) 중국의 로보틱스 전시 품종 로봇 중 수동 리모콘 조작 로봇이 다수</li> </ul>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은 아직
02	SDV·자율주행은 Physical AI에 편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V와 자율주행은 더 이상 '차량 기술'이 아니라, Physical AI로 구현된 형태로 재정의되는 국면에 진입</li> <li>-SDV·자율주행의 설계 표준이 미확정(LiDAR vs. Radar vs. AI 등)인 상황에서 Physical AI로 편입 중</li> <li>- (테슬라의 기초) '센싱 등 주행 기술'의 경쟁 보다는, 'AI가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가'에 집중</li> <li>→ 인간은 LiDAR, Radar 없고, 비전과 뇌로 운전 → 테슬라가 AI 이미지 센싱을 고집하는 이유</li> <li>➔ (현장 확인) Zoox는 운전석이 없고, 사람의 운전이 불필요</li> </ul>	차량 운행의 주체는 Physical AI로 이동
03	중국 가전 기업의 위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가전 산업의 플랫폼(OS)경쟁은 생활 환경을 인식·판단·자동화하는 '생활형 Physical AI' 경쟁으로 이동 → 가전은 생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AI 노드로 진화</li> <li>-가전 기업 대부분은 자체 OS 및 Android 기반 OS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연결·제어·연동 기술은 상향 평준화</li> <li>-DREAME의 급부상 이유는 센서·모터·제어·AI 알고리즘을 자체 루프(loop)로 고도화 → 제품이 팔릴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다시 성능 개선으로 환류</li> </ul>	가전은 생활형 Physical AI
04	디스플레이는 초대형 공간 인프라로 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대형·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종착지 기술은 Micro LED RGB로 수렴</li> <li>-모듈 기반 초대형 스크린, 설치·유지보수 현실화 → 디스플레이는 '패널'이 아니라 '공간 인프라'로 진화</li> <li>➔ 중국은 '만드는 기술(제조·공정·스케일)'에서, 한국은 '뉘는 기술(세트, 경험, 브랜드)'에서 경쟁 우위</li> </ul>	Micro LED RGB 수렴
05	NVIDIA의 한계는 메모리와 End Product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칩이 모든 AI를 처리하는 시대는 끝나고, AI마다 다른 칩을 쓰는 시대로 이동</li> <li>-범용 초고성능 (NVIDIA), - 목적 특화 학습 (Tesla Dojo), - 엣지·저전력 AI (Qualcomm 등)</li> <li>-칩 경쟁은 '성능'에서, '어디에 종속되는가(End Product &amp; System Ownership)'의 경쟁으로 이동</li> <li>➔ AI 전략의 주도권은:메모리 + 데이터 + 엔드 디바이스(e.g. 차, 로봇 등)를 가진 쪽으로 이동</li> </ul>	AI 칩 시장 분화 니치 플레이어로 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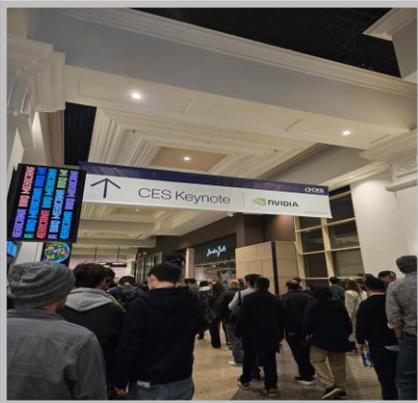
# [참고] NVIDIA CEO 젠슨 황의 작년(2025.1.6) 기조 연설: Physical AI 시대 도래를 예측



- 가족 재킷을 입고 등장
- AI의 미래 전망과 이를 이끄는 NVIDIA 칩 공개



- AI는 향후 에이전틱 AI와 Physical AI로 진화 전망



- NVIDIA CEO Jensen Huang의 기조 연설을 기다리는 인파
- 기조연설이 열리는 만달레이 베이는 1시간 전부터 인산인해



- NVIDIA의 제품 라인업을 공개하며, AI,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의 혁신에 엔비디아의 기여와 역할 강조
- NVIDIA가 전망하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공학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슈퍼 AI 칩과 플랫폼 공개

# [참고] Recap. CES 2025 - AI is No where 에서 Now Here

딜로이트는 CES 2025 이후 중국 기업의 공세 강화,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탈 CES' 움직임, 그리고 AI와 전 산업의 융합(AI+X)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예측은 CES 2026에서 적중했습니다.

## CES 2025

### CES 2025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및 CES 2026 전망

#### 중국의 위협

- 중국은 전체 참가기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참가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참가국
-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이미지에서 고급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전환 시도
  - 디스플레이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도달
- (생태계 강화 추진) 약 1,300개의 중국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스타트업
  - AI 기반 로봇,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지속가능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주목

#### 탈 CES 징후

- 지정된 일정과 공개된 전시 부스 외 별도의 이벤트 공간 마련으로 VIP 네트워킹 추진 (e.g. 삼성전자, LG, IBM 등)
- 전시 행사 종료 후의 네트워킹과 후속 조치(비공개, 유료행사)에 집중 (e.g. The CES After Dark Singles Mixer, Founders & Funders Dinner)

#### AI+X (AI와 모든 분야의 결합)

-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가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등 모든 산업과 일상에 적용
- 완성차 업체는 별도 참가 없이 자율주행 기술 부스에서 AI기술과 결합된 Mockup 전시
- Nvidia는 AI 기반 슈퍼컴퓨터 'Project DIGITS' 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Cosmos' 모델을 발표하며 AI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물리적 AI)을 제시

## CES 2026 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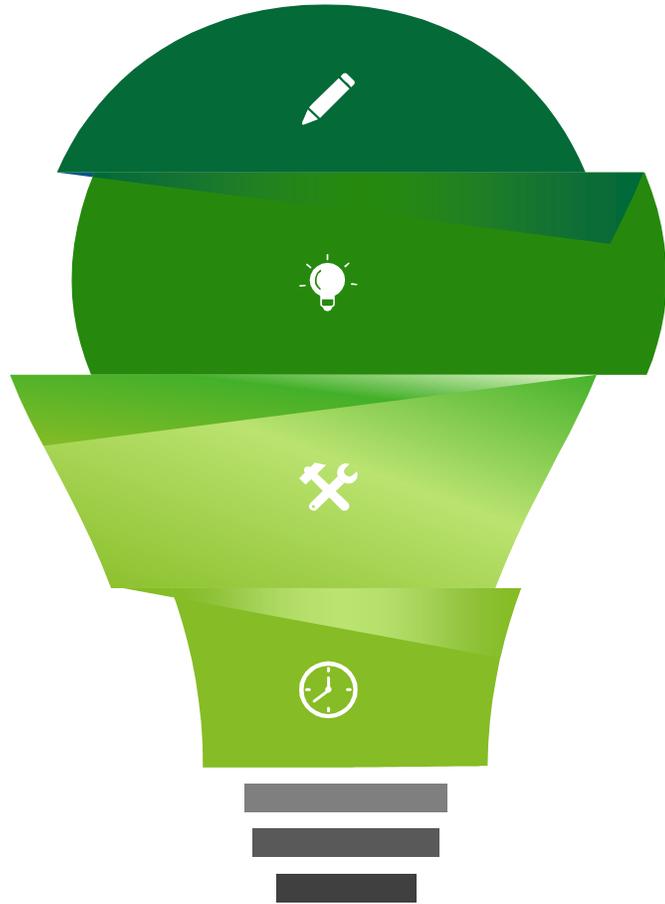
중국 테크의 공세 전면화  
EV·로봇·AI 칩·가전 전 라인업에서  
영향력 확대

삼성 전자는 LVCC를 벗어나  
원 호텔에 4628㎡(약 1400평) 규모의  
단독 전시관 조성

Physical AI의 산업 현장의  
실적용 사례 다수 등장하고  
CES 정체성이 B2C에서 B2B로 확대

출처: CES 2025 Debrief by Deloitte Insights ; The CES After Dark Singles Mixer-2025년 1월 9일, 오후 9시~10시, 진행, 스타트업과 투자자들간 교류 행사 ; Founders & Funders Dinner-2025년 1월 7일, 오후 6시~9시 진행,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초청 전용 이벤트

# CES 2027 전망 - 한층 더 실증된 사례 등장



## •로보틱스는 ‘AI 탑재’에서 ‘AI 실증’ 단계로 이동

- 로봇은 많았으나, AI가 실제로 학습·판단·적응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다수는 고도화된 로보틱스 수준
- 실패 → 재시도 → 개선의 학습 과정이 가시화 되고 로봇의 차별화 기준이 ‘동작’에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

## •Toyota의 재등장 - 도시 인프라 중심 자율주행·Physical AI 사례 소개

- 2026년 전시에 참가하지 않았던 Toyota가 CES 2027에서 우븐시티 실 사례를 소개 예상
- 도로·신호·에너지·물류와 연결된 인프라 기반으로 작동되는 자율주행 체계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 SDV는 도시 인프라 위에서 작동되는 Physical AI로 재정의

## •‘기기’에서 ‘일상 - 병원 연결 시스템’으로 진화한 헬스케어 서비스·제품 등장

- 모든 디바이스가 신체 신호를 상시 수집 (일상 → 분석 → 위험 신호 → 병원 연계)
- 단품 의료기기 경쟁 → ‘에코시스템 기반 건강 운영’ 경쟁 본격화

# 딜로이트 전용 라운지

Deloitte Skybox Lounge(W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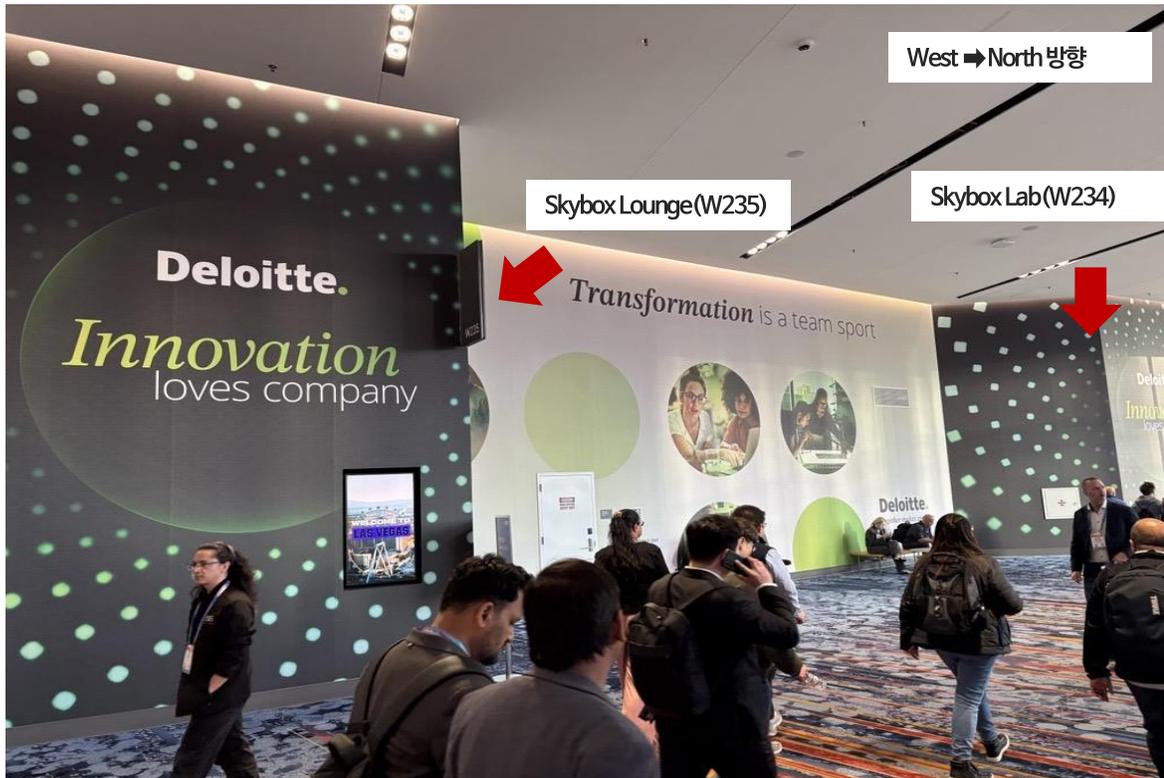
Deloitte Skybox Lab(W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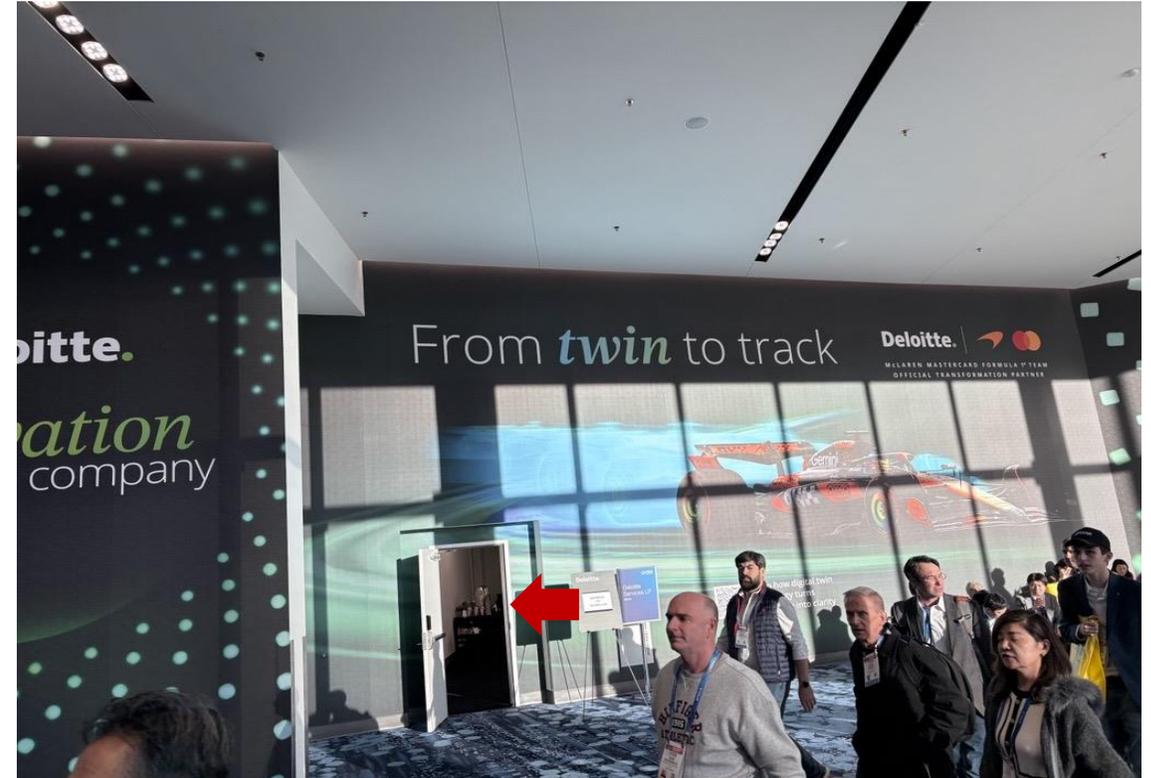
# The Deloitte Skybox Lounge(W235) & Skybox Lab(W234)

스카이박스는 Deloitte 리더·산업 전문가와의 미팅, 협업 논의, 관계자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Skybox Lounge 입구



- Deloitte Skybox Lab(W234)은 West Hall 2층, North Hall와 Central 진입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동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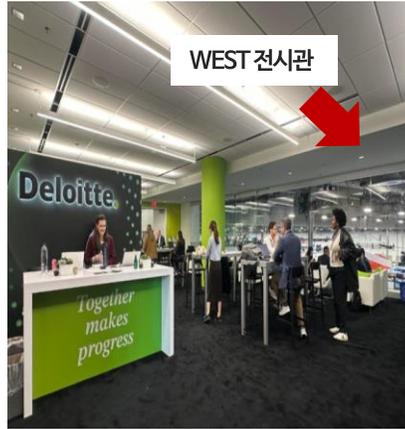


- 올해 신설된 Skybox Lab 공간으로 미팅 가능한 회의실과 방송 스튜디오가 구비되어 있으며, 전면에 Deloitte-McLaren 레이싱 협업 이미지 전시

# The Deloitte Skybox Lounge(W235) & Skybox Lab(W234)

Deloitte 리더·산업 전문가와의 미팅, 협업 논의, 관계자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Skybox Lounge(W235)



- Skybox Lounge(W235) 에서 CES 2026 배지 제시하고 입장 (딜로이트 직원이거나, 딜로이트 관계자 초대 시 방문 가능)
- (좌) 내부 리셉션, (우) 딜로이트 라운지를 방문한 딜로이트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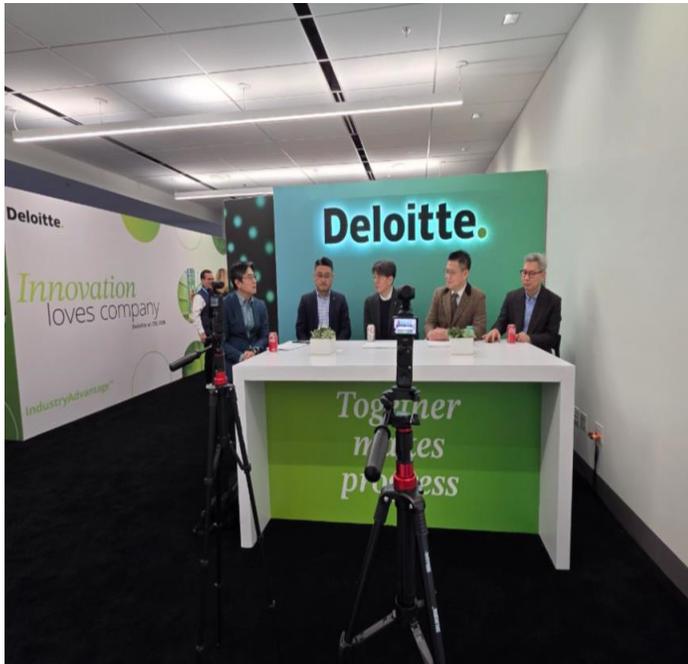


- WEST 전시관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스낵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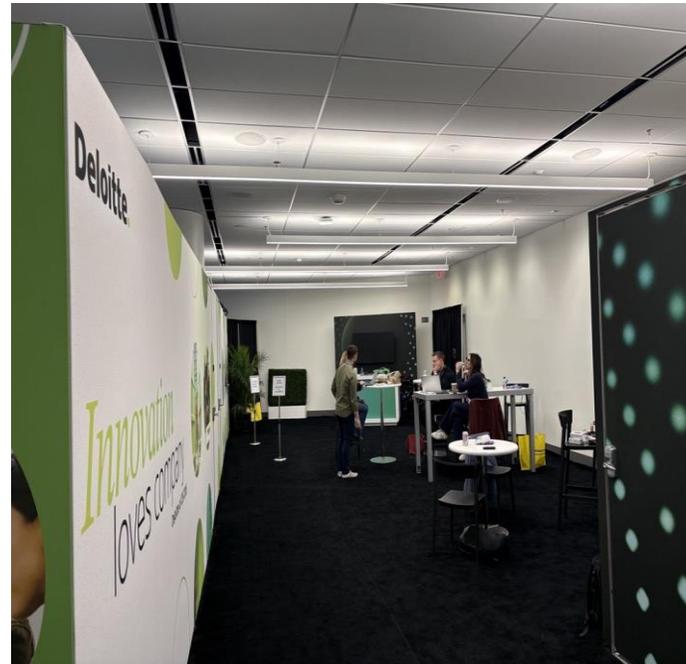
# The Deloitte Skybox Lounge(W235) & Skybox Lab(W234)

Deloitte 리더·산업 전문가와의 미팅, 협업 논의, 관계자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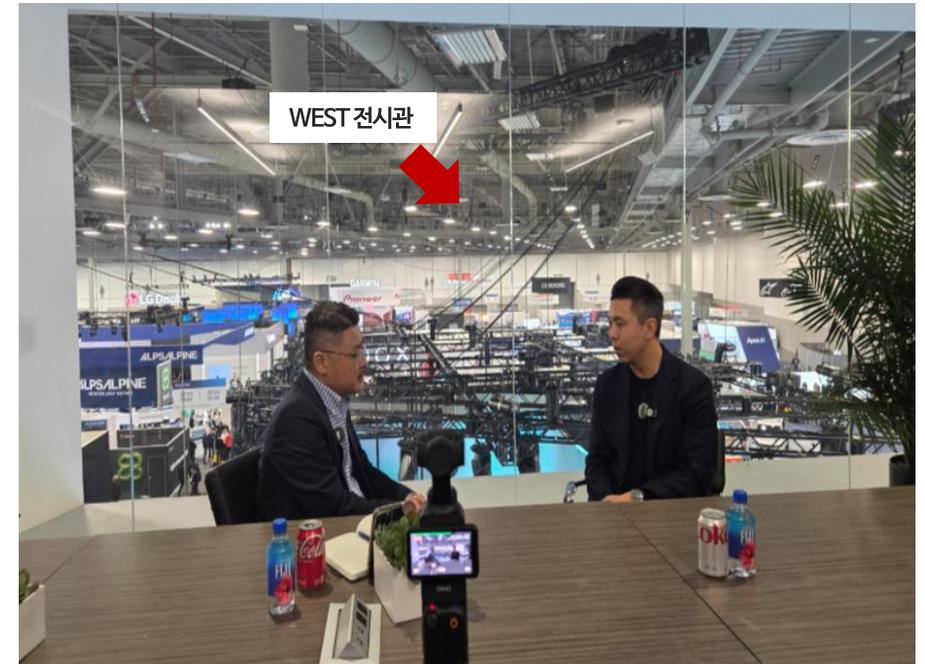
## Skybox Lab(W234)



• Skybox Lab 에서 패널회의의 진행중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파트너



• Skybox 내 회의 공간



• Private 회의실에서 인터뷰 중인 김태환 파트너(자동차 산업 리더)와 Chris Ahn 파트너(Software-defined and Connected Vehicles 프랙티스 리더)

##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MZ세대 소비자, ESG, 경제전망 등 이슈 분석 리포트
-  CEO·CFO 분기 서베이, 자동차구매의향지수 등 경영·산업 동향 지표
-  딜로이트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영상 콘텐츠
-  채용공고, 임직원 브이로그,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딜로이트 소식

 카카오톡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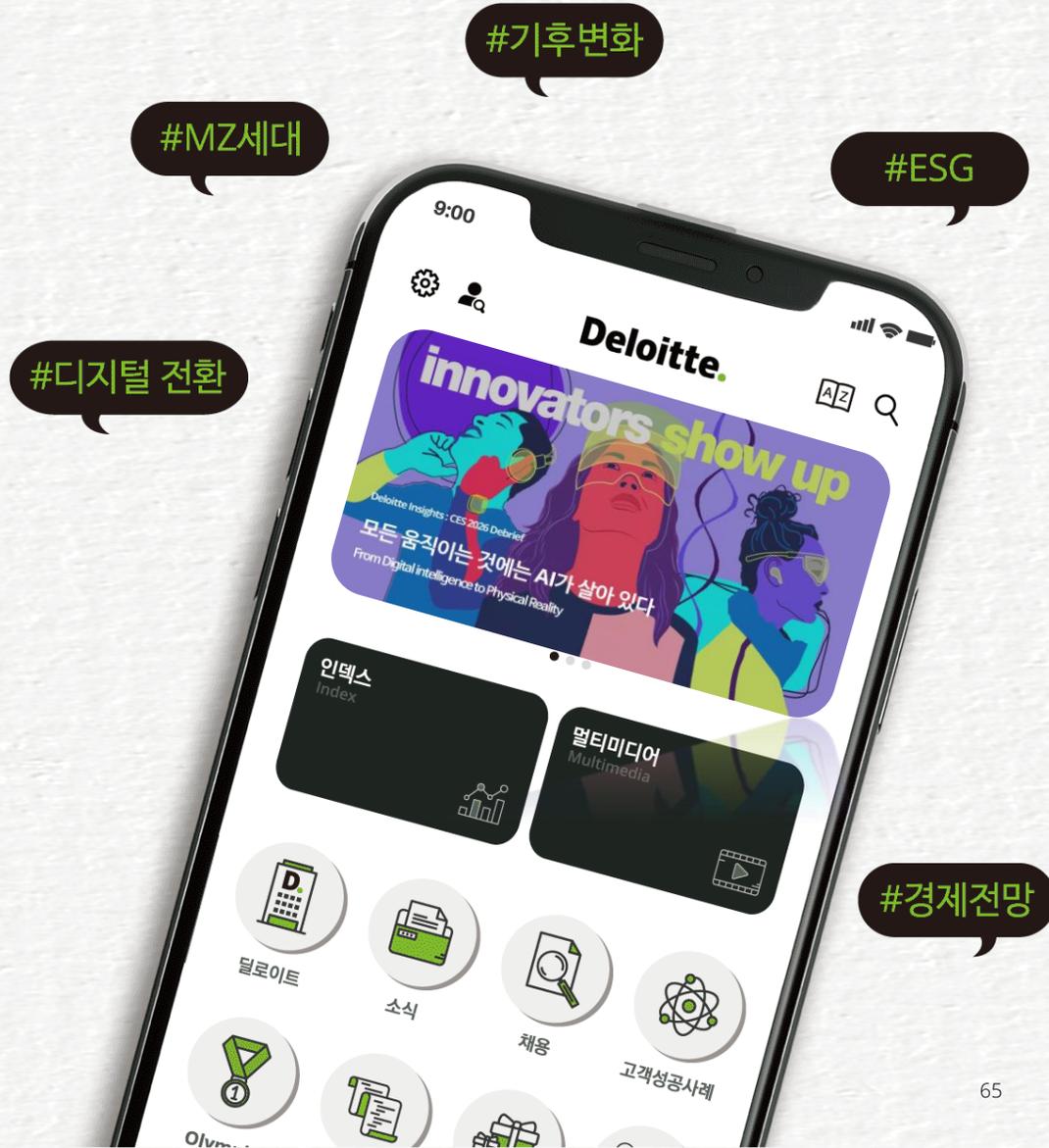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Insights

<p><b>성장전략부문 대표</b> 손재호 Partner <a href="mailto:jaehoson@deloitte.com">jaehoson@deloitte.com</a></p>	<p><b>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b> 박경은 Director <a href="mailto:kyungepark@deloitte.com">kyungepark@deloitte.com</a></p>	<p><b>연구원</b> 배순한 Director <a href="mailto:soobae@deloitte.com">soobae@deloitte.com</a></p>	<p><b>Contact us</b> <a href="mailto:krinsightsend@deloitte.com">krinsightsend@deloitte.com</a></p>
--	---	---	---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